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진중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찾아 미지의 땅을 찾은 창고도들의 신앙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바깥에서 조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굳건한 신앙을 지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 있습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에스겔 43:2)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91호 2012년 7월 7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국 번영, 바로 독립선언문에 있다!

미국의소리, “독립 제236주년... ‘정신과 마음속의 개혁’ 계속” 보도

북미주 대륙의 영국 식민지 13 개주가 발표한 독립선언이 1776년 7월4일 대륙회의에서 공식 승인됨으로써 신대륙 미국이 식민 통치자 영국으로부터 정치적 유대를 단절하고 신생 독립국가로 출발한지 올해로 236년이 된다. 미국의 독립선언은 그 역사적 중요성을 넘어서 선언문의 감동적인 표현들의 힘은 도리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독립선언 이후 오늘날 미국은 어떠한 나라로 자리매김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미국을 만들어온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지를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가 보도함으로,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있다.



미국의 번영, 창대함은 창고도 신앙위에 세워진 건국기념에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명백한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진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 문구는 미국 독립선언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이 문구를 포함한 미국 독립선언문은 230년전 당시 서른 세 살의 독립운동 지도자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것으로 1776년 7월4일 대륙회의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당시 미국 독립선언문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었고 영국 식민통치로부터 미국의 독립 촉발을 뜻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버나드 대학교 허버트 슬로안 역사교수는 지적한다.

그것은 이 독립선언문이 공식 승인되기 이전에 미국은 이미 독립 국가로서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1776년 7월4일까지 독립국가로서 행동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보다 1년 몇 개월 앞서 영국 군주에 대항하는 실질적인 내전이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독립선언이 공식 승인된 7월4일은 당시 식민지인들이 더 이상 돌아설 수 없고 화해를 위한 희망을 더 이상 갖지 않고 있음을 선언을 공포한 날이었다고 슬로안 교수는 해석한다.

바로 독립선언문은 ‘우리가 말하면, 그렇게 될 뿐이다’라는 의미이며 독립약속을 실천하고 이 같은 극히 진지한 의지를 세계 다른 지역에 알리기로 서명한 13개주 사람들의 실질적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1776년 7월 4일 이

후, 줄곧 자유에 대해 극히 진지했다고 컬럼비아 대학의 에릭 포너 역사교수는 해석한다.

자주독립과 자유는 미국의 역사를 통해 국가적 슬로건이 돼왔으며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선포한 새로운 자유나,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선포한 표현과 종교의 자유, 빈곤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4개 자유이던 간에 모두 동일한 맥락의 자유이다.

한편, 버나드 대학교의 허버트 슬로안 교수는 미국은 많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 독립의 기원을 군사적 승리와 연관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미국의 독립선언이 1776년에 공식 승인되기는 했어도 영국의 항복을 가져온 군사적 승리는 그로

부터 6년 남짓 지난 뒤에야 성취됐음을 슬로안 교수는 상기시킨다.

미국 건국 참시자의 한 사람인 존 아담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혁으로서 1775년 이전 아메리칸인들의 정신과 마음속의 개혁이다.”

미국인들에겐 독립출범 이래 7월 4일이 자유를 상징하는 기념일로 돼왔지만 독립기념일이 연방국경일로 공식 제정된 것은 거의 백년이 지난 1870년이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7월 4일은 자유의 상징으로서 여러 가지 그리고 의외의 방식으로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3면으로 계속)



신뢰받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

패스터스닷컴, 겐 블랜차드, 필 하지스의 팀 리더십과 가족 리더십 소개

신뢰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일대일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면 권한 위임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팀 구성원 간에 신뢰가 없다면 부여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권한 위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머지않아 팀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팀리더십을 가정에 적용하면 상황은 더욱 흥미롭게 바뀐다. 가족 리더십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리더가 쓰는 열정과 노력은 리더 자신의 개인적인 최우선 사항이나 욕구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 리더십의 보람은 가족 간의 애정이 깊어지고, 자녀의 인격이 서서히 성장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가족의 리더가 어떤 본보기가 보이는가에 따라 그 가족 구성원들은 연령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법을 배운다. 또한 성공, 실패, 역경에 대한 시각, 문제해결 방법, 애정과 자긍심을 전달하는 법을 배운다. 가족의 리더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성가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둔다면 그 기준과 가치관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가족의 리더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리더의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따르게 된다.

가족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과 그것을 담당할 사람, 기간, 목적을 정하는 일은 다른 어떤 형태의 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못지않게 어렵다. 가족의 리더는 구성원들이 좋은 의도로 행한 일이 실패하여 어려움에 처했다면 애정 어린 말로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 가족이 중심을 잃거나 열쇠를 분실하거나 전화 메시지를 잃어버렸을 때 내내심을 갖도록 격려해야 한다. 마지못해 일하고 짜증내고 실마리를 풀지 못할 때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줘야 한다. 또한 반항적이고 의심 많은 가족에게는 올바른 태도와 기준을 설정해주고, 다친 사람은 따뜻한 말로 위로해줘야 한다.

가족리더십을 통해 얻는 결과는 물질적인 성과보다 훨씬 크다. 가족의 리더는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과 유대감을 조성하는 행동과 선택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 최우선사항, 전통, 정체성 등을 구성원들에게 전한다. 가족 리더십은 평생을 통해 각 구성원의 성장, 발전, 양육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족 리더십의 경우,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외부 조건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단순한 팀으로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 영적 가족의 리더인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가족 리더십을 발휘해서 영적인 가족을 이끌어야 한다. 교회는 일이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팀이 아니기에 단순한 팀 리더십이 아닌 가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대한 리더로 키워 가실 때 가족리더십을 발휘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리더들도 가족리더십을 통해 많은 위대한 리더들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2면

양날에 칼 '오바마케어' 합헌 판정 그러나 결정은 대선에서 하게 된다



3면

“세상 기대나 예상과 전혀 맞지 않는 리더”



7면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김기원 목사(장위제일교회)



16면

입당 감사예배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발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2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령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 부 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2년 9월 7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2년 9월 8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2년 9월10일(월) - 12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 학 감 / 교 부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칭찬합시다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모든 사람들은 좋은 면,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발견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맑은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참 맑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짧은 인생의 날들을 수놓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실족하여 낙심한 사람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울며 다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울며 다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록 손을 펴 잡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칭찬하며 여유가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칭찬 잘하는 것도 큰 재주라고 합니다. 칭찬하는 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도 합니다. 선한 마음에서 칭찬이 나온다고 하고 칭찬은 칭찬을 부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혼하고 혼한 격언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세상은 칭찬보다 헐뜯거나 비난이 난무하는 것일까요?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칭찬하지 못하면 남을 진심으로 칭찬할 수 없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추켜세우고 칭찬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며 나아가서는 건방진 행동이라고 가르칩니다. '자화자찬'이란 말도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칭찬하는 겸양의 미덕만큼 자신의 발전과 바른 자세를 스스로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합니다. 칭찬이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삶에 비하하고 칭찬할 수 없다면 남을 칭찬하는 것은 허위며 가식이 될 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리더는 늘 주위의 사람들을 칭찬하는 분입니다. 그 사람에게 적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남을 칭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으며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이 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칭찬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타인에게 전달되고 또 그 타인이 칭찬의 고리를 이어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친절은 끊임없이 연결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서로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칭찬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복된 공동체를 그려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칭찬을 시작해야 합니다. 몇 가지들을 나누어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장점과 가능성이 보일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장점을 기억하고 개발하며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어" "나도 귀한 존재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큰일을 하실 거야!" 셋째, 곁에 허락하신 가족을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가만히 꼬-옥 안아주세요.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어깨동무를 하십시오. "I love you" 넷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기쁨으로 대하십시오. 소망을 나누어주세요. "반가워요." "점점 멋있어 지는 것 같아요? 비결이 있으세요?"

칭찬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칭찬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어 보십시오. 자신부터 시작하십시오. 칭찬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기대합니다. 칭찬으로 세상을 춤추게 하십시오.

양날의 칼 '오바마케어' 합헌 판정 그러나 결정은 대선에서 하게 된다

미 언론, "헬스케어 개혁법" 탄생과 찬반논쟁 원인, 대선에 미칠 파장 보도

대선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건강보험개혁이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받았다.

CNN은 28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에 대해 5대4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 오바마케어는 마침내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받으며 빛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3200만 명이 오는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원래 오바마케어는 5명의 보수 성향 판사와 4명의 진보성향 판사로 이루어진 대법원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았다. 스티븐 브레이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성향 대법관이 예상대로 찬성한 가운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의 전 로버트 대법원장이 의외로 결정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보수성향이지만 경우에 따라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덕분에 중도로 분류되기도 하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으로 주목받았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위헌 판결을 내리며 반대표를 던졌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오바마는 백악관 공식성명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건강보험개혁법으로 더욱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온 국민을 위한 승리"라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를 비롯한 보수진영은 일제히 반대의 포문을 열어, 모든 국민이 강제로 들어야 하는 '오바마케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까지 동성결혼논쟁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인 정치권은 또다시 의료보험 합헌판정으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고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과 대안 제시는 뒷전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미 언론은 분석한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공화당의 지지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보험 개혁법으로 오는 2014년부터

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오바마케어 반대론자들은 건강보

험은 되지 않지만 값비싼 민간 건강보험을 가입하기엔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 보조금도 지급한다. 이 때문에 오바마케어 시행되

면 정당소송에 휘말렸다가 이제서야 합헌 판결을 받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의 합헌성

“보편적 복지”, “국민건강 정부책임” 주장에 “개인의 자유”, “강제성, 경제적 부담” 반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오바마케어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의 건강보험 가입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26개 주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3월말 오바마케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했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케어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핵심 쟁점은 모든 사람들이 의무

보험을 강제하는 이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상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을 자유는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이지만 정부가 어떤 상품의 구매를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오바마케어 지지자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맞서고 있다. 건강은 자동차나 TV 같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인권이며 인권의 인만큼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수급 조

면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의 재정으로 1조50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적자 축소를 주장하는 공화당으로선 이 같은 재정 부담도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요인이다.

또 다른 반대 요인은 바로 오바마케어 법안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뜨거운 논쟁과 폭력적 시위로 치달으며 국론을 양분시키는 우려곡절 끝에 '역사적' 입법화에 성공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오바마케어는 정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표류 중이다. 법안 자체가 2,000여 페이지로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지만 일부 시행된 부분의 혜택효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아직 시행에도 들어가지 않은 핵심조항은

이 논의됐다:

1. 모든 개인에게 의료보험에 가입하라 명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의무화 조항은 위헌인가, 혹은 헌법이 보장한 연방의회의 각 주권 통상을 규제할 수 있는 경제입법권 행사에 해당되는 합헌인가.
2. 2014년부터 시행되는, 아직 아무도 벌금부과를 받은 적 없는 의무화 조항에 대한 합헌성 판결은 대법원 소관인가, 시기상조 아닌가.
3. 만약 의무화 조항이 위헌이라면 그 조항만 폐기되는가, 아니면 나머지 법 전체도 무효화 되는가.
4. 연방정부는 개혁안에 의해 각 주에 메디케이드를 확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가.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진다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세상 기대나 예상과 전혀 맞지 않는 리더”

리더십저널, 프랜시스 찬 목사의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소개

프랜시스 찬(Francis Chan) 목사는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 위치한 코너스톤교회의 담임목사이며 이터너리 성경학교 설립자이자 아동기 야구팀과 월드임팩트의 이사장이다. 그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젊은 이들을 일으키는데 정열을 쏟고 있으며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회가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는 프랜시스 찬 목사는 교회공동체의 리더 역시 하나님께 서로 잡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 혹은 영웅은 대부분 외형적인 기준에 있어서 뛰어난거나 준수함을 갖춘 사람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들을 비교해보면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모가 뛰어나거나 성품이나 도덕성에서도 뛰어난 리더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 혹은 영웅은 대부분 외형적인 기준에 있어서 뛰어난거나 준수함을 갖춘 사람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들을 비교해보면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모가 뛰어나거나 성품이나 도덕성에서도 뛰어난 리더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는 이들마저 사랑하며 그 사랑이 감사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리더들은 자신의 안전과 안락함을 위해 살지 않는다. 위험과 고통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보다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집중한다.

자신의 위험 고통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 상황, 주변 요구 채워주기보다 하나님께 순종

예외로, 사람들이 바라는 리더와 정작 역사 속에서 커다란 획을 그었던 사람들은 의외로 그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만의 비전과 꿈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이 시대를 앞서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신들의 꿈을 현실 속에서 일궈내기 위해 그 꿈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발견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분명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시대적 영웅들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은 다 위대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외로, 사람들이 바라는 리더와 정작 역사 속에서 커다란 획을 그었던 사람들은 의외로 그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만의 비전과 꿈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이 시대를 앞서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신들의 꿈을 현실 속에서 일궈내기 위해 그 꿈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발견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분명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시대적 영웅들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은 다 위대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리더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 자주 이야기 한 이유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더라면 진정한 비전과 꿈을 찾기 위해 자기 성장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R.C. 스토프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과 꿈에, 아니 하나님께 사로잡힌 리더들을 찬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리더들은 나뉘 줄 줄 아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 꼭 빠진

하나님께 사로잡힌 리더들은 상황이 나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더욱 우선순위를 둔다.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는 상관 없는 일일지라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리더들은 교만의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아무리 마음을 낮추어도 스스로 “완벽한 겸손”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리더들은 이 세상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리더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킨 이들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리더들이다!

미국 번영, 바로 독립선언문에 있다!

(1면에서 계속)

결국 불과 200년 조금 넘는 정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을 지구촌 최대 초강대국으로 만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정신과 마음속의 개혁”인 것이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국토, 천혜의 자연 환경, 안정된 정치제도와 탄탄한 경제력, 역시 세 번째로 많은 인구 등은 외부적인 조건이지, 독립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미국의 건국 이념, 바로 미국은 꿈을 좇는 이민자의 나라라는 것, 또 자원봉사와 기부문화로 대표되는 청교도 정신이 바로 오늘날까지 미국을 있게 한 힘의 원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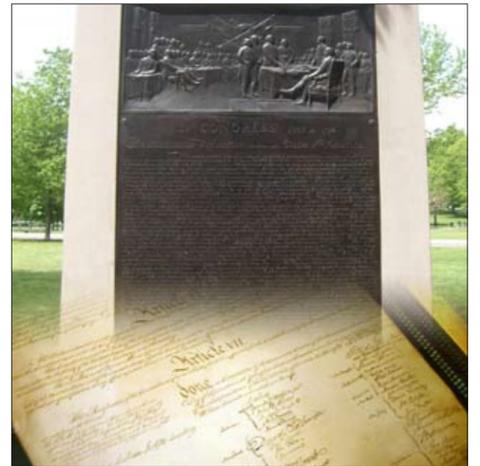
따라서 신생 독립 국가인 미국을 방문한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위대성은 다른 나라들 보다 개명된 게 아니고 스스로의 과오를 시정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미국인들은 나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늘 온갖 종류의 단체를 조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크빌은 이처럼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소수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 시민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토크빌이 관찰한 미국의 이 같은 특징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단체들을 조직하고, 소수의 권익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의 미국을 있게 한 힘이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바로 “정신과 마음속의 개혁”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 대륙을 밝은 청교도들로부터 유래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신앙의

힘을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잘 보여준다.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기 이전에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그는 미국 독립 전쟁을 치를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목격됐다. 워싱턴이 가장 힘들게 전쟁을



치렀던 곳인 포지(Forge) 골짜기에 세워져 있는 워싱턴기념교회당에는 이런 기도가 적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미국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형제애를 허락해주소서. 이들이 숭신하여 정의를 행하도록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며, 좋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결론으로, 워싱턴 대통령과 같은 건국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바로 미국 독립선언문 탄생에 기여했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와 서원에 응답해주셨기에 그 감동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양날의 칼 ‘오바마케어’ 합헌 판정

(2면에서 계속)

이 사안에 소송을 제기한 주는 현재 26개 주나 된다.

결국 연방의회의 경제 규제권을 인정해온 사법부의 오랜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합헌 판정으로 일단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은 대선에 중요한 분수령을 넘게 됐다.

오바마케어는 건강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 혜택의 사각 지대에 처한 저소득층의 인권을 고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를 문제이다. 오바마케어는 본질적으로는 자유를 우선할 것이냐, 자유를 일부 침해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권한 보장을 우선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제 오바마케어의 앞날을 결정할 주요 요소는 한 가지다.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으면 오바마케어는 원안대로 살아남아 시행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진통 끝에 살아남

은 오바마케어는 대선이라는 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비록 오바마케어를 공격하는 공화당의 논리에 타격을 줬지만 아직 여론의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법원 판결이 오바마케어를 파시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보수층의 표심을 대선에서 더욱 결집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오바마와 맞붙게 될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는 대법원의 합헌 판정 같은 날 버지니아 연설에서 “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 날부터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것(get rid of)”이라고 밝혔고,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역시 논쟁을 계속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오바마케어가 힘을 얻었지만 오바마와 함께 계속 살아남을 것인가는 이번 대선을 통해 나타날 유권자의 결정에 달려있다.

담임목사 청빙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 격**
 - 정규 침례 신학교 (M.Div.)를 졸업하시고 남 침례 교단(s.b.c.)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로 사역이 가능한 분
 - 목회 경력 5년 이상(침례 교회)
 -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유자로 40-50세 초반
- 제출서류**
 - 이력 및 학력 증명서, 목사 안수증
 - 목회 소명 및 비전
 - 목회자 추천서(추천인2명)
 - 본인 및 가족 사진
 - 최근 설교(한국어, 영어)2편씩 Dvd, 동영상 Web address
- 제 출 처**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 교회 (안 영균 목사)
Rev. Young K. Ahn
116 N. Ormond Ave.
Havertown, Pa, 19083
(610) 789-3077, (484) 716-1185
E-mail: ykahn104@gmail.com
ok_ahn@hotmail.com
제출 기한: 2012년 8월 31일 까지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 교회
담임 목사 및 청빙 위원회

부목사님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는 풀타임 부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 격**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 (M.Div)
 -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이중언어로 설교 할 수 있는 분
- 구비서류**
 - 이력서
 - 목사 안수증명서
 - 학력 증명서
 - 설교 CD 2개
 - 목사님 추천서 (2인)
- 제출마감** 2012년 7월 31일
- 제 출 처**
 - 주소: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 E mail: yspcpastor@gmail.com
- 문의** 김대호목사 (215-542-0288)

영생장로교회
담임 이용걸목사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 (임마누엘장로교회)

미개척 미전도 종족에 교회를 개척합시다

현재 지구상에는 언어와 문화가 구별되는 약 12,000종족이 있고, 그 중 약 6,400종족은 아직 크

리스턴 비율이 2%미만인 '미전도 종족'에 머물고 있으며, 그 중 3,300 종족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개척 미전도 종족'(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UUPG)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 땅에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고 주변에 크리스천도 없고 멀리 찾아와서 전해주는 선교사도 없어서, 일평생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종족들로, 지구상 65억 중 약 6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의 창조자가 살아계신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영적 무지와 어둠 속을 헤매며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곧 지옥의 나라로 떨어질

것입니다. 선교단체들은 서울에서 "1995년 세계 선교대회"(GCOWE 95)를 모여 미전도 종족 선교를 결의했지만 당시 6,431종족이었던 미전도 종족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미전도 종족의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선교단체들만으로는 선교교역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초대교회 시절처럼 교회 선교에 나설 때인이 밝혀졌습니다. 안디옥교회처럼 오늘날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GAP(Global Assistance Partners) 선교회는 이제 교회들이 선교의 보조자가 아니라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선교 현지

미전도 종족들을 연결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이 선교회는 전 세계에서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사는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미주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단기선교를 떠날 것입니다. 의료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해야 하겠지만 결국 선교의 승부는 기도와 복음 전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은 선교단체들과 함께 미전도 종족에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Church Planting Movement)에 동참합시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예는 복음을 전하는 좋은 매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가고 우리 자녀들도 보냅시다. 우리 민족도 130년 전에는 미개척 미전도 종족 중의 하나였습니

다.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빛난 자로, 선교에 더 집중하되 선교의 마지막 과업인 미개척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아직 남아있는 3,300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이 종족들 모두(all the ethnic groups)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다시 오실 것입니다(마24:14).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요4:35).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이미 무르익은 영혼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른/초/장

황영진 목사 (뉴욕 낙원장로교회)



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14:1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우리 곁에 보이는 실제로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다 듣고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리라"(시50: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와 환난이 닥쳐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므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탄 모든 생명을 구원해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14:16)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하고 위로하며 은혜를 베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지낼 때 느꼈던 감각과 능력을 실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대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엄청난 환란과 핍박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서는 그 어려운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의 파도와 풍랑을 체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오병이 기적의 축복도 있지만 갈릴리 바다의 광풍과 파도가 일어나는 환란과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고난과 위기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불행한 일들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 같은 고통의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인생의 생사 회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닥친 고난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와 환란의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6:16-21

지난 월요일은 6.25사변이 일어난 지 62주년 되는 날이었다. 6.25사변 당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공산군의 남침에 밀리고 밀려난 땅 끝까지 쫓겨내려갔다. 조금만 더 밀렸다면 우리나라가 공산정권에 넘어갈 위기였다. 6.25사변 발발 후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의 교회 목사님들과 신자들에게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국가적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어려운 순간에 부르짖는 주의 종들과 신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쟁에 개입하시고 나라를 지켜주셨다. 그때 당시 유엔에서 연합군을 한국에 파견하려고 상임이사회의 상정했을 때 상임이사국 중 한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되게 되어있었다. 그 상임이사국 중에는 소련이 회원국으로 있었는데 상임이사회가 열렸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소련 대표가 갑자기 북쪽 설사가 나서 한국의 파견할 연합군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무난히 가결되어 유엔평화연합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공산군을 물리쳐준 것이다.

감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 같은 분이시면 우리들의 식량문제, 사회 정치 문제를 능히 해결해주시기로 믿고 왕으로 추대하고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가까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

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고난을 겪도록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기 전 오병이 기적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

로 가던 제자들은 갑자기 불어 닥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일고 강풍이 몰려오자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 초조, 좌절감에 살길을 구하여 사력을 다해 노를 저어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명인줄 알고 더욱 놀라고 두려워할 때 뜻밖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졌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오병이 기적으로 흥분되고 감격했던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고난이 필요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

뜨도 잠깐이고 제자들은 곧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을 풍랑 속의 위기에 처하게 하셨던 것은 지금은 그들과 함께 있지만 머지않아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신다는 사실 때문에 모두 근심이 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요한복음 14: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에 응

환난이 닥쳐오거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믿을 없는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됩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사도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그가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파선할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나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주었다"라고

시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어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약속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27)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참 평안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어 하나님

▶ **밥(BaB, Background of Bible) 하는 장재일목사의 명쾌한 성경해석책이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바레복음**

권역 1만권 504권 / 18,000원 (1~13권) 682권 / 25,000원 (14~25권) 신국립인양

복음서들이 비록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제자와 동정인물들은 대부분 히브리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관점의 관점과 사교방식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서는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교방식을 바탕으로 바레복음의 깊이와 깊이를 해석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탁월하고 풍부한 해석적 인물을 제공해 줄 것이다.

▶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성경의 절기를 잘 알고 싶다면 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절기의 풍습, 이스라엘의 기후, 농사적 상황, 성령의 세사의 식을 따져도 밥비문헌을 토대로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성경의 절기에 대하여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면 이 책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복음서와 나뉘는 무다 문화의 배경 208면 / 9,000원

무대인호상경주의 278면 / 10,000원

장재일 목사

- 휴신신대원총장
- 예루살렘대학성경지리역사학과교수
- 현성지대학Ph.D 과정
- 현세이렌교회목회사
- 현한국어사립연구소연구위원
- 현히브리얼립어카데미대표

SEOUL 서울국제도서전 BOOK FAIR 2012

6. 20. - 24. COEX A/B 홀

www.sibf.or.kr

http://www.israelecademy.com
6월부터 이스라엘 일과가 대대 개편!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이 신청한 예수탄생지로 알려진 베들레헴의 예수탄생교회를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승인하였다. 더 나아가서 유네스코는 예수탄생교회를 조속한 보전대책이 필요한 위기유산으로 등록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베들레헴의 예수탄생교회가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간 것이 잘된 것이냐 하는 반론이 있다. 그렇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크게 반발을 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예수탄생교회의 유산 등재에는 찬성하지만,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를 이스라엘에 대항할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의 신뢰 유네스코는 예수탄생교회를 조속한 보전대책이 필요한 위기유산으로 등록했다. 미국 역시 유네스코 대표부에 성명을 내고 “이를 긴급 사안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팔레스타인의 단독 신청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이다.

성묘교회에 버금가는 성지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이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다.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바로 이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다. 베들레헴은 해발 777미터의 산지에 위치해 있다. 또한 베들레헴 북쪽 입구 쪽으로 유대인의 성지인 라헬의 무덤이 있다.

지금 베들레헴에는 무슬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타인의 무슬림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중의 핍박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되었다.

현대의 베들레헴의 모습을 보면서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죄악된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느낀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의 베들레헴은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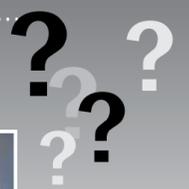
누구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헌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셨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이기적인 시도는 변하지 않았다. 베들레헴의 세계문화 유산등록을 단독 추진하던 사람들도 단독 등록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팔레스타인은 예수탄생교회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빗자하여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압제를 세계에 알리고 그 위상을 국제적으로 손상시킬까 궁리한다. 극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모든 팔레스타인들은 무슬림들이다. 무슬림들이 예수탄생교회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기뻐할 이유가 없다.

이스라엘은 예수탄생교회가 세계 문화 유산등록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기분이 나쁜 팔레스타인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싫다. 그리고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목사입니다. 이제 2년 후면 저는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며 선교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목사님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한데 그 길을 가시려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인도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의 이상적인 모델이 있다면 예수님과 바울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바울보다 예수님의 모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교의 모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나라에서 영광중에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악 세상에 선교사로 내려 오신분입니다. 한마디로 인간과 동일화한 것입니다. 그 분은 우리가 사는 삶을 사셨으며 우리가 겪는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경험하셨으며 우리가 당하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교사의 모델로 진정한 선교는 성육신적 선교가 되어야함을 말해줍니다. 선교사는 자기의 기독교적 확신과 가치관과 기준들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는 시야를 벗고 중국 사람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중국선교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대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선교의 모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도나 선교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난의 대가를 치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의 빛이 되고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오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사50:6-7).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하시다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쉬운 길을 발견하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쉬운 길은 실패합니다. 저 불신의 영혼들을 구원하려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희생없는 선교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선교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여받으십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알파한 성경지식, 신학, 교리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거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일주일 그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복음전도에는 악의 정사와 권세와의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그 전투에는 영적무기가 필요한데 기도와 말씀의 실력과 성령의 능력만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치유와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특히 선교지의 사람을 사랑하는 예

예수탄생교회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다. 교회의 보존과 성지순례의 자유스러움을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불안한 지역사정에 의하여 성지 순례객들의 마음을 조이고, 또한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성지 순례가 촉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이번의 일들은 기독교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려는 생각이나, 성경적인 혹은 신앙적인 동기에서 진행된 일이다. 매우 정치적인 동기들이 이 일에 바탕을 이루고 있다. 여러 번 주님이 바뀌었던 베들레헴은 1995년도 이후부터 팔레스타인이 지배하고 있다.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유네스코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그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으로 파손 위협을 받고 있다”고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유네스코의 결정이 있자마자 팔레스타인 정부의 칼기는 성명을 내고 “국제적인 기관에서 팔레스타인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점령의 끝을 맺는 시작이다”라고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팔레스타인 문화정보부의 하난 아쉬라위는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땅, 우리의 삶, 우리의 문화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제와 약화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유네스코가 교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동시에 인정할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팔레스타인의 주장은 이곳이 이스라엘 치하에서 파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방의 전문가들과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의 웨버(Jeremy Webber)는 베들레헴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3개의 기독교 교단들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주장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도구화 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팔레스타인의 시도가 이스라엘과의 평화회담을 방해하는 요소로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지인 이 교회에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 의하여 파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유네스코의 결정을 두고 교회에 안입한 사건을 지적했다. 그런 그들이 교회의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순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예수탄생교회는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로 2010년에만 관광객 150만 명이 다녀갔다. 이 예수탄생교회는 약 1700년 전에 세워졌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옛 시가지에 있는

냥 조그만 마을이었을 뿐이다. 온 세상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전혀 반기지 않았다.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힘없고 가난한 목자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현장에 와서 경배했을 뿐이다.

예루살렘의 헤롯의 궁전에서와 성전의 종교지도자들에게는 소동이 일어났었다.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에 태어나신 왕을 찾았기 때문이다. 헤롯은 공포에 떨었다. 그렇지 않아도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자기의 아내도 삼촌도 무자비하게 죽였던 악명 높은 피의 군주이었다. 그는 자기의 암살의 위협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 처처에 도피처를 지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베들레헴 유아학살 음모를 세우고 진행한다. 그리고 헤롯은 수많은 어린이들을 학살함으로 예수님을 맞았다. 베들레헴은 피로 물들여졌다. 이것이 메시아를 믿는 정치세력의 반응이었다.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기독교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면서 그 누구도 경배하러 떠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오시는 왕이신 메시아에게는 예루살렘 옛 시가지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싫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듯이 베들레헴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주변의 나라들에게 묘한 기류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비슷한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그 속임과 생각이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중동은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것이다.

이번의 유네스코의 결정을 통해서 팔레스타인과 베들레헴의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유익한 일들을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리며, 지역의 평안을 통해서 상한 심령들에게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하게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이 모든 논쟁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한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담임목사 청빙

Texas 주 Houston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새누리침례교회는 복음의 비전을 품고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어 갈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1.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보수신앙을 가지신 분
2. 남침례교단 소속 혹은 가입이 가능하신 분
3. 장류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분(M. Div학위이상)
4. 목회 경력 5년이상 되시는 분
5. 이중 언어 구사에 불편함이 없는 분
6. 미국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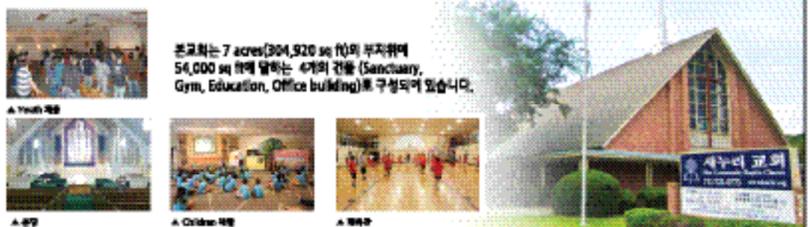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 후 목회안 분야 대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3. 이력서에 주소, 연락처, e-mail 주소 등 필수 기재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성장과정, 목회동기, 가족관계, 신앙경, 등)
3. 학위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4. 목사안수증명서
5. 최근 설교 CD혹은 DVD 2회
6. 최근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각 1매
7. 본교회 복회 기록 및 비전에 대한 소견서
8. 추천서(2인)

제출기한

2012년 8월 31일(당일 도착분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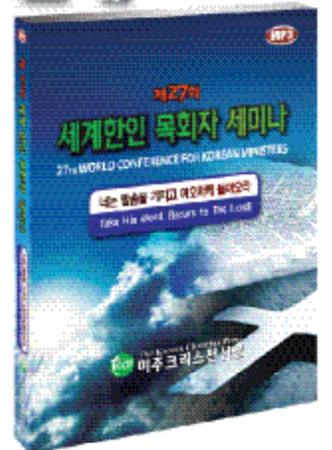
본교회는 7 acres(304,920 sq ft)의 부지위에 54,000 sq ft에 달하는 4개의 건물 (Sanctuary, Gym, Education, Office building)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주소: 9560 Long Point Rd, Houston, TX 77055 홈페이지: http://www.hnccbc.org
Tel) 713-722-0773, Fax) 713-722-8929 e-mail) hnccbcoffice@gmail.com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 금관교회에서 개최한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9편 전체가 2장의 CD(MP3)로 나왔다. “나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5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교회부흥과 영적 회복을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회복전략 접근까지 엄선된 16강의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의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총 소요시간 26시간, 2개의 CD로 묶어 가격은 20달러. 강사는 김홍도, 소강석, 권택진, 황의영, 현성태, 김기원, 조원태, 송용길, 이영섭, 이정현, 김승욱, 홍민기, 조원규, 김규진, 송규식 목사님 등 본지 발행인 정영은 목사님도 강의에 순서대로 참여했다. 또 제 26회 복회자세미나와 평신도세미나 CD 2장과 함께 발매한다. 27회와 함께 총 4장의 CD를 합쳐 30달러에 판매 한다.



주요: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가격: 20달러(제 27회 목회자세미나) / 30달러(27회 & 26회(평신도 포함) 우수료 별도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방글라데시의 마니푸리(MANIPURI)



전세계의 1천3백만 마니푸리족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인도의 북동부에 거주하지만 인접국인 방글라데시에도 약 119,700명이 거주하고 있다. 메이테이(Meithei)라고도 알려진 마니푸리족은 몽골족의 후예들이며 메이테이어(Meithei)를 사용한다. 18세기에 여러 번의 전쟁에서 버

마인들에게 패배한 후 많은 마니푸리족들은 고향인 인도북동부의 마니푸르 왕국으로 도주했으며 이후 영국에 지배를 받게 된 동부 벵갈(East Bengal)에 정착했다. 1947년 동부 벵갈이 독립을 획득했다. 대부분의 마니푸리족이 힌두인이지만 동부 벵갈 시민의 대다수는 무슬림들이다. 즉 그 지역은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의 동쪽 날개가 됐다. 1971년 동파키스탄이 파키스탄에서 탈퇴하고 국명을 방글라데시로 개칭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마니푸리족은 그들의 힌두 스타일을 고수

함으로써 언어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방글라데시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된 채로 남아있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마니푸리족들은 북동 방글라데시의 신희지역(the district of Sylhet)에 거주한다. 그 지역은 인도의 메갈라야(Meghalaya)주에 접해있다. 신희는 경치가 아름다운 차밭재와 무성한 열대 밀림으로 유명하다. 방글라데시의 대부분 다른 지역에는 평야가 많은데 반해 이곳 신희지역은 밀림과 얇은 산지들이 많은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마니푸리족은 농부이다. 그들의 주된 작물은 쌀이지만 사탕수수, 담배, 오렌지, 파인애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작물도 재배한다. 마니푸리족은 물고기를 먹지만 힌두전통에 따라 육류는 먹

지 않는다. 이들은 개인위생에는 아주 세심해 강가에 마을을 이뤄서 세탁과 목욕을 자주 한다.

시골지역에서 마니푸리족들은 자신들의 집을 흙수 피해에서 막을 수 있도록 대나무 장대위에 짓는다. 벽은 갈대로 만들어 진흙을 칠하고 지붕은 이엉(thatch)이나 양철판으로 만든다. 마을은 몇 개의 씨족(대가족 단위의 일종)으로 나뉘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씨족내 사람과 결혼할 수 없고 다른 씨족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 마니푸리족은 단일한 사회계층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계층은 인도의 카스트에 맞춰보면 불가촉천민(untouchables)에 해당한다. 이들은 아무 세력이 없으며 다른 높은 계급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를 위해서 마니푸리족은 폴로, 보트 경주, 드라마, 춤 등을 즐긴다. 이들의 아름답고 표현이 풍부

한 춤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춤은 실제로는 대화를 노래로 부르며, 행동들을 묘사하는 해설자에 의해 설명되는 드라마다. 주제는 일반적으로 크리쉬나(Krishna) 신의 일생에서 따온 것이다.

신앙

마니푸리족은 16세기에 힌두교인으로 개종했으나 힌두 이전의 종교적인 요소가 아직도 남아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힌두신들 숭배에 더해 계속해서 많은 자연의 신들 및 특별히 뱀의 형상으로 지구에 왔다고 하는 신을 숭배한다. 미신적 관습이 마니푸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수탉의 발의 위치를 관찰함으로써 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심지어 "모든 지혜는 수탉의 발에서 나

온다"라고 하는 속담을 가지고 있다. 춤은 마니푸리족의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들의 눈에 춤은 신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며 우주적으로 필수요소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방글라데시는 많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나라이다. 인구의 반 이상이 문맹이고 보건상태가 부적절하며 자주 있는 자연재해가 이 나라를 황폐시키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물질적 필요들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영적인 필요들이다. 마니푸리족들은 힌두교, 정령숭배와 미신의 결합으로 눈이 가려져 있다. 이들은 힌두교에 다소 불만족스러워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도 저항적이다. 메이테이어로 신약이 번역됐지만 이들의 언어로 된 라디오방송은 아직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장기불황에 미기독교인 34% 헌금 줄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교회 헌금을 줄이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기독교 전문 조사기구 바나그룹은 성인남녀 1056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 사이 경제사정이 안 좋아 헌금 액수를 줄었다'는 응답자가 34%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미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헌금을 줄인 비율은 2008년에 20%, 2010년 29%, 지난해엔 30%였다. '헌금을 아예 끊었다'는 응답자도 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08년 4%, 지난해 7%였다. 바나그룹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 베이비부머 세대(47-65세)가 헌금을 가장 많이 줄었다.

데이비드 키너만 바나그룹 대표는 "헌금을 줄이는 비율이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를 축소하는 비율보다는 낮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교인들의 피로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BWA, 이단 '베리아' 가입원 '궁정검토' 논란

전 세계 1억여명의 침례교인 연합체인 침례교세계연맹(BWA)이 기독교베리아 교회연합(베리아, 성락교회, 김기동)의 회원가입 청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 관계자는 2일 "BWA



임원들이 베리아가 올 초 BWA 회원가입을 청원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침례회 인사인 H목사가 베리아에 대한 국내 교계의 이단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BWA 가입청원 추천서를 써줬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베리아 가입 문제는 2-6일 칠레에서 열리는 '2012 BWA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에서 가입청원이 승인되면 실행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침 총회는 베리아 가입을 승인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최근 BWA에 발송했다. 또 BWA 부총재 한영국 목사 등 6명을 대책위원으로 파견했다. 기침 총회는 해당 추천서를 써 준 H목사에 대해 회원제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리아는 2008년부터 BWA 회원가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 초 신년 하례회에서 BWA 회원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 연구 자료에 따르면 베리아는 비성경적인 귀신론 사상 등으로 예상 고신과 합동, 통합, 기침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했다. 한기총도 2005년 8월 이를 재확인했다. 예상 통합은 '김기동 류로 이초석과 이명범도 이단으로 규정했다. 김기동은 귀신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단 창조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이중 아담론'도 주장했다.

꾸준히 세를 넓혀온 베리아는 재직 교인 수가 18만 여명에 이른다는 게 성락교회 측의 설명이다. 전국 대학에 CBA(Campus Berea Academy)라는 이름으로 동아리를 두고 있다. 2009년 2월 준공한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는 약 2만5000명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목회자들은 BWA가 회원가입을 승인할 경우 국내 주요 교단과 단체의 이단 결의에 대한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계가 혼란에 빠질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예상 고신 유사기독교연구소 최병규 목사는 "베리아가 BWA 회원이 되더라도 한국교회의 이단 결의는 효력이 있다"며 "베리아는 무엇보다 귀신론과 계시론, 창조론 등 비성경적인 이론을 사제하고 한국교회 앞에 잘못을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 63% "오바마가 기독교인?"

[미션라이프] 미국 국민 10명 중 6명이 바라 오바마 대통령이 기독교인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언론 인터뷰와 기고글에서 자신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소개한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크리스천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최근 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인남녀 1004명 중 63%가 오바마의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44%는 오바마의 종교가 무엇인지 몰랐고 대통령을 무슬림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11%나 됐다. 8%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종교를 개신교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34%였으며 천주교라고 답한 사람은 2%로 나타났다. 지지당에 따른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공화당 지지자 중 18%는 오바마가 이슬람교 신자라고 알고 있었다. 공화당은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를 무슬림이라고 공격했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3%만이 오바마를 무슬림이라고 응답했다.

갤럽은 오바마가 다른 종교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종교를 헛갈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갤럽의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미트 롬니의 종교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롬니는 독실한 모르몬교인이다.

오바마는 대선 전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개신교인 트리니티 연합그리스도교회(UCC)에 출석했으며 백악관에 임성한 뒤 여러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브라질, 새 방송법으로 기독교계 타격



브라질 정부는 앞으로 TV채널과 라디오프로그램의 임대를 금지하는 방송법을 입법하고 있고, 이는 기독교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한 법령은 "그 어떤 기관이나 사업체도 방송 서비스를 그 기관이나 사업체의 재정적, 상업적, 종교적, 정치적, 사업적 관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배, 관리, 경영, 명령 혹은 지도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가 특정시간대를 특정 단체에 임대해 그 단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브라질 교계는 이 법령이 언론의 자유와 종교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브라질 교계는 주요 TV와 라디오 채널을 통해 복음프로그램을 방송해왔다. 결국 이와 같은 법령은 공중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봉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계는 법안의 취지가 공공재인 전파를 사적인 이익의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옥살이 2년만에 가장 박살



누명을 쓰고 2년이나 옥살이 하던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 타미라트 울데고르기스가 최근 석방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석방은 파란만장한 일이었다. 타미라트는 지난 2010년 코란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돼 2년간이나 수감생활을 했다. 이 기간 내내 별로 크지 않은 감방에서 무려 50명이나 되는 재소자들과 한방에서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가 구속된 것은 그의 이슬람 신자 동업자의 거짓 고발 때문이다. 이 동업자는 그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책장에 비치된 코란 안쪽 표지에 "예수는 구주시다"라는 글자를 적어 넣어 코란을 모독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타미라트는 석방됐지만 집과 자녀는 물론 건강까지 없었다. 감옥에서 당한 가혹행위로 그는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 타미라트는 자신이 체포된 사이에 마을의 이슬람 신자들이 그의 자녀들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그는 추가적인 신변의 위협을 고려해 기독교를 믿는 지인들의 집에 은신해 회복을 기다리는 한편 자녀들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연안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곁으로 돌아오라



김 규 동 목사
(요한동경기독교회)

선교지 일본에서의 “선교적 교회” (1)

일본의 기독교의 시작은 1549년 천주교의 예수회와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신부가 가고시마(鹿児島)에 상륙하면서 부터이다. 자비에르 신부는 짧은 사역기간 동안 일본이 복음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당시 일본인들의 품성은 밝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일본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 수가 점점 증가하여 1590년에는 30만 명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지는 못했다.

이제는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유학기간을 마치고 귀국하였

시작하였다. 그런데 전도를 통해 연결되는 학생들은 한국 유학생

기독교회가 창립되었다. 필자는 1998년 일본 극좌파 혁명노선협의회 소속회원들에게 쇠파이프의 공격을 받았다. 이 테러 사건을 통해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었고 일본선교의 열의는 가속화되어갔다. 1998년 이후 교회는 더욱 부흥되어갔고 교회개혁이 본격화되었다. 2012년 현재 4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 사역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 한일공동주최를 준비하면서 한국을 알리는 드라마가 일본에서 붐을 일으키고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한류열풍은 계속 불고 있다. 이것이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일본인 전도에도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일본에 기독교가 도래한 이래 과거 몇 번의 부흥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그리스도인 인구는 0.45%에 불과하다. 일본교회마저 일본은 선교가 어렵고 일본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99.55%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일본은 ‘신의 나라’를 표방, ‘바테렌(신부) 추방령’을 발표했다. 이후 전국시대가 끝나고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천하가 통일되고, 쇠국정책에 따른 기독교 금교 정책이 취해져 국가적인 탄압이 전개되었다.

1637년 아마쿠사 시마바라의 난으로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한 농민반란이 일어나자 그리스도인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어 사청제도(寺請制度), 후미에(踏み繪), 5인조(五人組) 등의 철저한 금교 정책에 의해서 교회는 파손되고 전도도 곤란되었다. 이때 많은 순교가 있는 반면 배교도 많았으며, 소수의 신자들은 그 모습을 감추고 은밀히 예배함으로 가꾸어가기시단(숨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명맥을 유지했지만 나중에는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2)메이지(시대) 18, 19세기의 서구 열강은 아시아의 나라들에게 식민지정착을 추진하여 1858년 미일수호통상

시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의 대표자를 불러 국민도덕의 진흥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을 요청하였고 참석한 대표자들은 그것을 수락하여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삼교협동은 기독교가 천황제 국가주의에 순응하고 국가체제에 편입되는 첫걸음이 되었다.

이 시기 일본에서 형성되었던 개신교의 3대 원류로는 요코하마, 구마모토, 삿포로의 3개의 밴드를 들 수 있다.

▲요코하마밴드-1872년 일본 기독교회(공회주의-교파를 초월한 교회형성을 목표, 단순한 복음주의, 무사계급중심)의 탄생으로 비롯되었다. 미국인 선교사 바라, 브라운이 대표적. 교회중심보다는 신조나 신학을 중시하는 편이었다. 요코하마 밴드의 흐름을 이어받은 교회가 일본기독교회연합회인데 장로제를 도입해 전쟁 전에 일본 최대의 개신교 교회가 된다.

▲대표인물-오가와 요시아스, 시노자키 케이노스케, 후다 요우이치, 우에무라 마사히사

▲구마모토밴드-구마모토는 당시 근대화 시류에 뒤쳐졌다. 그래서 인재육성을 위해 구마모토 서양학교를 설립하였다. 초대교장으로 쟈즈를 초빙했다. 구마모토 밴드는 국가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것이 특색이다. 1880년에 독일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을 때 가장 영향을 받게 되었다.

▲대표인물-오자키 히로미치, 에비나 단조, 우키타 가즈타미

▲삿포로밴드-삿포로농업학교 초대교장으로 크라크가 취임했다. 삿포로밴드의 특색은 개인주의적이고 무교파주의적 경향이 강했다.

▲대표인물-우치무라 간조, 니토베 이나조

(다음호에 계속)

1549년 예수회,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 후 개신교 유입 메이지시대에 원류로 요코하마 구마모토 삿포로 3개 밴드

1. 일본기독교의 시대별 상황

(1)복음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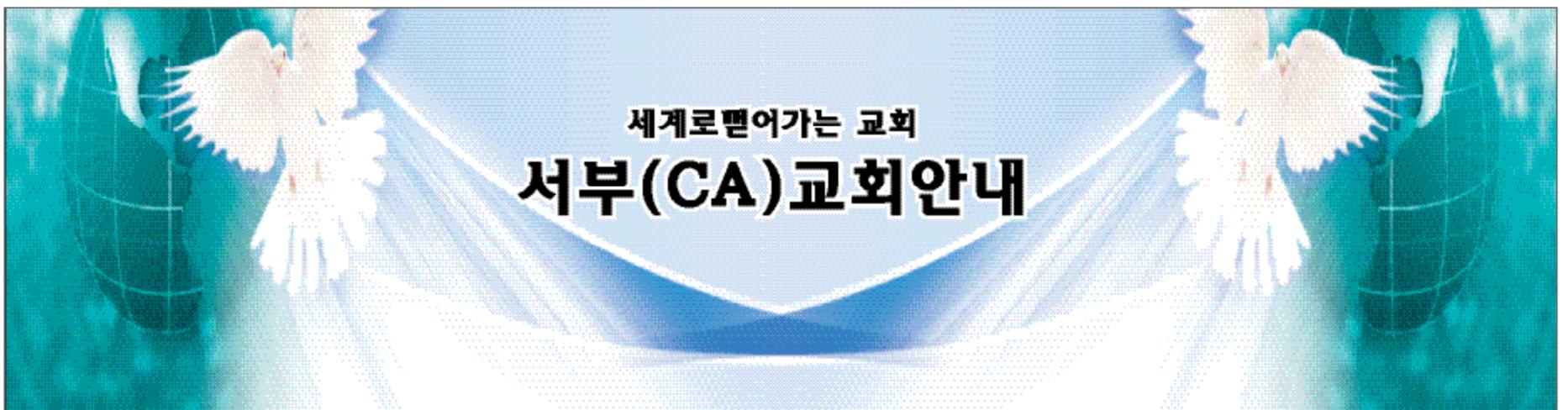
일본 기독교의 시작은 1549년 천주교의 예수회와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신부가 가고시마에 상륙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전국시대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50년 동안에 45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1587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약을 맺고 그 다음해 발효되자 미국의 여러 선교단체들은 차례 차례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1868년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었고 열강의 정치적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 1873년 정부는 기독교 금지령을 폐기 하였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는 계속해서 기독교는 하나의 사고(思考), 아니면 일본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외교(外敎)로서 인식되어져 있었다.

1912년 삼교회동이 있었다. 당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 예배: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5 주일 4부 예배: 오전 2:30 목요양육회: 오후 7:30 www.gksch.org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권유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30(중년부) 주일 5부 예배: 오전 3:30(노년부) 수-금 요양회: 오후 7:30 세계기도회: 오전 8:30(월-토)	나성영원교회 담임목사: 박연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 예배: 오전 1:00 수-금 요양회: 오후 7:30 세계기도회: 오후 8:30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경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양육회: 오후 7:30 세계기도회: 오전 8:45(월-토)	나성만교회 담임목사: 민정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육회: 오후 7:30 목요양육회: 오후 8:30 주일 5부 예배: 오전 11:00	남가주든교회 담임목사: 김원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금 요양회: 오후 7:30 목요양육회: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전 8:45(월-토)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금 요양회: 오후 7:30 목요양육회: 오후 8:00(월-토)
남가주사망의교회 담임목사: 노정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5 주일 4부 예배: 오후 1:15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금 요양회: 오후 7:30 목요양육회: 새벽 8:00	등문교회 담임목사: 최재우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양육회: 오전 11:00 목회자대회: 오전 8:30 목회자대회: 오후 8:30 목회자대회: 오후 7:45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 Diaspora Bible Center 담임목사: 권영자 목사 '가장 가까이 있는 외국어 성경을 위해 노력하는 신교회' 목회자대회: 저녁 8:00 주일 예배: 오전 11:30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대회: 오전 8:30 목회자대회: 오전 11:30 목회자대회: 오후 7:30 목회자대회: 오후 8:30(월-토)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금 요양회: 오후 7:30 목회자대회: 오전 8:30(월-토) 목회자대회: 오후 8:00(월-토)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저용덕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대회: 오후 7:30 목회자대회: 오전 8:30(월-토)
미주 평인교회 담임목사: 송정택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15 목회자대회: 오전 11:45 목회자대회: 오후 8:30(월-토)	방주선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노년부)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중년부)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청년부) 주일 4부 예배: 오전 1:30(유년부) 목회자대회: 오전 8:30(월-토) 목회자대회: 오후 8:00(월-토)	매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연식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30 주일 5부 예배: 오전 3:00(유년부) 목회자대회: 오전 11:30 목회자대회: 오후 7:30	텐쿠버빌라델리아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 목회자대회: 오후 7:30 목회자대회: 오후 8:30(월-토)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택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대회: 오전 2:00(대만) 목회자대회: 오후 7:30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성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목회자대회: 오후 7:30 목회자대회: 오후 8:00 목회자대회: 오후 8:30	세계비전 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대회: 오전 11:00 목회자대회: 오전 11:30 목회자대회: 오후 7:30 목회자대회: 오전 8:30(월-토)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양육회: 오후 7:30 목회자대회: 오전 8:30 목회자대회: 오후 8:30(월-토)	새창조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대회: 오후 7:30 목회자대회: 오전 8:30 목회자대회: 오후 7:30	인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저용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30(유년부) 주일 4부 예배: 오전 1:45 목회자대회: 오전 8:00 목회자대회: 오전 11:30 목회자대회: 오후 7:30	얼빈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종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30 목회자대회: 오전 8:30 목회자대회: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염영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1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목회자대회: 오전 10:30 목회자대회: 오전 11:30 목회자대회: 오후 7:30 목회자대회: 오후 8:30(월-토)	오웬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효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대회: 오전 7:30 목회자대회: 오후 8:30	원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대회: 오후 7:30(월-토) 목회자대회: 오후 8:00(월-토) 목회자대회: 오전 11:00 목회자대회: 오후 8:3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대회: 오전 8:00 목회자대회: 오후 8:00(월-토)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박진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 목회자대회: 오전 8:30(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 목회자대회: 오전 8:30(월-토)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준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유년부) 목회자대회: 오전 8:30 목회자대회: 오후 7:3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대회: 오전 7:30 목회자대회: 오후 8: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대회: 오전 11:30(월-토) 목회자대회: 오후 7:30(월-토) 목회자대회: 오후 8:00 목회자대회: 오후 8: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85-0909 N.Y.: Tel. (718)586-0048 Fax. (718)586-0074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95. 성경의 쿵금증들(16) -노아홍수 사건이 정말로 있었는가?

노아홍수 사건은 그 자체보다 노아방주가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이 노아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들을 살리시는 것에 지면을 더 많이 할애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격변적인 노아홍수를 설명하면서 땅(지구)을 강조하고 있다. 노아홍수는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의 대 사건이었음에도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아홍수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가?

지난 칼럼에서 소개했던 James Ussher(1581-1656)의 (세계연보)라는 책은 7000 개(지난 칼럼에서 8000개 이상으로 잘못 전달 됨)나 되는 참고문헌을 수록한 대작이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노아홍수 사건은 BC 2348년에 있었다. 지금부터 약 4350여 년 전 일이다.

노아홍수는 무슨 사건이었나?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 세상은 더욱 악해져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고 땅 위에 폭력이 가득하게 되었다(창6:5, 11-12). 이것이 노아홍수 즉 심판의 원인이었다. 따라서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죽임의 심판을 받았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아니라 사람의 다스림 아래 있던 동물들은 물론 지구 자체가 심판을 받았다(창9:11). 노아홍수는 지구 멸망 사건이었던 것이다(벧후3:6).

노아홍수가 단순한 홍수였는가? 홍수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물로 덮인 것이다. 노아홍수도 이 지구 전체가 물로 약 2600미터 정도 덮이기는 했지만 이것이 전부 아니다. 성경은 노아홍수에만 '바람'이란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특별한 사건으로 물보다 더욱 강조된 것이 지구다. 노아홍수는 인류가 전혀 상상도 못할 큰 규모의 지진과 폭발(창7:11) 그리고 물로 지구가 모두 파괴된 사건이다.

노아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사건이었는가?
만약 노아홍수가 지구 전체가 물

지질학의 신격변론시대... 전 지구적 대규모 지층들 즐비 진화론적 고생대 신생대 생물체 탄소동위원소 비율일치



노아홍수의 현장 그랜드 캐년
대륙의 80%를 덮고 있는 지층과 여7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의 나이가 동일한 것은 노아홍수의 강력한 증거!

로 150여일 간 덮인 홍수사건이 아니라면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다른 곳에 미리 피해 있으면 될 것이고 동물들이 멸종할 우려도 없다. 성경은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창7:19)라고 기록함으로써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음을 확인하고 있다.

신약의 저자들도 이 사실을 언급하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멸망된 노아홍수를 사실로 인정하셨다(마24장, 롭17장). 특이한 것은 지구의 나이를 수십억 년이나 오래된 것으로 믿는 거의 모든 학자들은 노아홍수를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지 않았다고 하든지 조용하게 물로만 덮었다고 주장한다. 창조

후 격변적인 사건이 딱 한 번만 일어났다면 수억 년 되었다는 지층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아홍수가 전 지구적인 격변적 홍수사건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가?

큰 사건이 사실로 있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하면 그 사건이 있었다고 믿어주기 어려울 것이다. 노아홍수는 지구가 멸망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대규모 증거들이 널려 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지질학적 증거는 육지의 80%를 덮고 있을 뿐 아니라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지층들이다. 지층은 흙이나 자갈 바위들이 운반되고 퇴적된 다음 굳어진 암석인데 지층들 중에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수 천마일이나 되는 지층들이 있다. 성경 외에 인류의 기록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대규모 사건의 결과물들이다.

두 번째 증거는 그 지층들 속에 묻혀 있는 생물체들이다. 화석이나 석탄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맨 아래 지층(진화론적으로는 고생대)

인데 성경의 기술(記述)과 공통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또, 2004년 과학계의 최고 명성을 자랑하는 Nature지에는 가계를 통한 인류의 조상을 예측한 모델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류의 기원은 169세대 5000년 전이었다. 이 시기는 정확하게 노아가 태어난 해와 불과 50년 차이밖에 없었다. 현재 인구 수를 계산해보아도 노아홍수가 약 4350년 전에 있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수 십만년의 인류 역사를 가정하면 현재 인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노아홍수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이 사실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1-11장이 신화라는 교육을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이다. 16-17세기부터 시작된 자연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사실상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자연주의란 모든 것을 자연적인 물질과정으로 설명하려는 움직임으로 과학발달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사상적으로는 성경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

의 생물체의 탄소 동위원소(C-14) 양과 맨 위층(진화론의 신생대)의 생물체 탄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같다. 이 증거는 진화론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인데 고생대-신생대 같은 시기였을 뿐 아니라 아주 최근임이 명명백백해지기 때문이다(연대 측정법의 원리에 따르면 10만년 이상 된 생명체에는 탄소 동위원소 C-14가 전혀 없어야 한다).

이 밖에도 산의 모양, 골짜기의 모양, 강의 넓이, 온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 그러나 지금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돌들 등은 노아홍수와 같은 대규모 사건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증거들이다.

노아홍수의 다른 증거들도 있는가?

전 지구적인 노아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면 전 인류는 노아에서부터 다시 시작된 셈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거의 모든 곳에 홍수 전설이 발견된다. 현재 320가지의 홍수 전설이 발견되었

었다. 특별히 19세기 초와 중엽에 발표되어 큰 인기를 끌게 된 찰스 라이엘의 "동일과정설"과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결정적이었다. 이 자연주의적인 시간과 기원에 대한 패러다임은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현대의 과학 패러다임이 되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신학자들마저도 이 패러다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사실은 아무리 좋은 설명으로도 바뀌지 않는다. 이미 지질학자들은 동일과정설을 폐기처분하고 있다. 지질학계는 동일과정설에 눌러 1960년까지 격변론의 암흑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지질학의 신격변론(neo-catastrophism) 시대라고 부른다. 진화론도 지난 150여년간 큰 호응을 얻었지만 아직도 진화론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있을 뿐 아니라 진화론자들 자체에서도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 신념임을 알아가고 있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이 아닌 자연주의적인 동일과정설과 진화론을 믿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떠난 신자들들과 신학자들은 이제 돌아와야 할 때다. 성경으로 곧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성품칼럼 (34)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성품리더십(2)-분별력의 리더십

성품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좋은 성품은 좋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성품은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주변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성품리더십이란 자신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이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품리더십의 두 가지 중요한 덕목 중 공감인지능력(1389호 8면 참조)에 이어 이번 칼럼에는 '분별력의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별력(Conscience)이란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선과 악을 분별해보는 것이지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 기준이 무너진 사회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 정의는 물론 도덕과 질서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행동도 무질서해지고 나아가 사회의 유지 존속 자체가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하루아침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분별력의 리더십을 소유한 지도자는 자신의 성품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더 좋은 가치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세상의 혼란한 가치 속에서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분별력의 리더십을 소유한 성품 좋은 지도자로 인해 가능하게 됩니다. 일찍부터 어떻게 자녀를 분별력 있는 리더십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가 먼저 분별력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부모는 자녀가 어려서부터 옳고 그름을 배우고 부모덕담 가치에 대항할 수 있도록 확고한 분별력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유혹을 받는 환경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아이의 내면에 깃들여 있는 양심의 기능을 강화해 주어야 하지요. 분별력은 부모가 보여주는 일상적인 실패와 말을 통해 지속적으로 훈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자녀는 애착을 느끼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가장 친밀한 대상이 될 때, 아이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성품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의 가치관을 자주 이야기해 주세요. 자녀에게 부모의 가치와 신념을 자주 말해 주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성품교육입니다. TV나 뉴스, 학교나 집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적합한 상황을 들어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좋은 행동을 기대하고 요구하세요. 자녀는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빈 버코위츠(Marvin Berkowitz) 박사는 "도덕적 기대치가 높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모든 도덕적 가치를 따르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 핵심적인 뜻은 아이에게 전달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분별력을 키우는 질문을 하세요. 올바른 질문은 자신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고 결과를 추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행동이 있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까?" "다른 사람이 네게 그렇게 대하면 너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와 같은 분별력을 키우는 질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여섯째, 가정의 규칙과 방침을 설명해 주세요. 부모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가정의 규칙을 설명해 주면 자녀는 부모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기준을 따르기가 쉬워집니다.

세계로 넘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찬양회: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공회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주일 8:00 주일학교: 오후 11:00 Tel: (704) 441-6621, Fax: (704) 441-7825 4219 Melrose Rd., Charlotte, NC 28217</p>	<p>맨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찬양회: 오전 11:00 공회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7:30 Tel: (704) 422-6638, Fax: (704) 422-6643 7760 Piedmont Ave., Atlanta, GA 30345</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찬양회: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8:30 Tel: (919) 222-0991, Fax: (919) 222-7777 3260 Morris Rd., Lawrenceville, GA 300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부흥회: 오전 8:00(한국영) 주일찬양회: 오전 10:15(영) 수요일예배: 오전 11:30(영) 공회예배: 오후 8:30 Tel: (770) 949-1922, Fax: (770) 949-2662 1550 Woodman Rd., Lawrenceville, GA 30047</p>	<p>멜렐교회 담임목사: 권종배 주일부흥회: 오전 7:30 주일찬양회: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후 8:00(영) Tel: (415) 419-1228, Fax: (415) 435-5487 2185 St. Johns Ave., Decatur City, GA 30032</p>	<p>보스ตั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명영 주일부흥회: 오전 11:00 주일찬양회: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8:30 공회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후 8:00(영) Tel: (609) 425-4578, Fax: (609) 435-5487 2 Main St., Haddonfield, PA 19040</p>	<p>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찬양회: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후 8:30 Tel: (410) 337-8444, Fax: (410) 337-8444 1820 Dumbarton Ave., Baltimore, MD 21202</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부흥회: 새벽 8:00 주일찬양회: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공회예배: 오전 11:00 Tel: (704) 352-6905 / (704) 352-6905 701 Scotsboro Road, Charlotte, NC 28219</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종교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찬양회: 오전 10:30(영)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후 7:30 Tel: (803) 428-2991 6037 Peachtree Ave., Atlanta, GA 30328</p>	<p>사이버링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부흥회: 오전 10:30 주일찬양회: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후 8:00(영) Tel: (919) 227-0991, Fax: (919) 227-1749 4610 N. Hwy. 101, Cary, NC 27513</p>	<p>알란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부흥회: 오전 11:30 주일찬양회: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공회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8:30(영) Tel: (919) 870-8028, Fax: (919) 425-5779 805 Kirby Blvd., Raleigh, NC 27611</p>	<p>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부흥회: 오전 10:30 주일찬양회: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7:00 Tel: (907) 344-6448, Fax: (907) 344-6789 8230 Greenwood Rd., Anch., AK 99518</p>	<p>앨파스델린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부흥회: 오전 8:30(영) 주일찬양회: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251) 979-5488, Fax: (251) 979-5488 3419 Arive Ave., Ft. Rucker, TX 7590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권 주일부흥회: 오전 7:30 주일찬양회: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전 12:00 공회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후 8:00 Tel: (714) 942-0284, Fax: (714) 942-0277 719 Wheeler Rd., Henderson, NV 89044</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부흥회: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공회예배: 오후 8:00 Tel: (254) 434-8708, Fax: (254) 434-8822 428 N. 5th St., Abilene, TX 7960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부흥회: 오전 8:00 주일찬양회: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영) 공회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8:30(영) Tel: (703) 947-4400, Fax: (703) 947-4448 4913 Matthews St., Alexandria, VA 223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창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찬양회: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15 공회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8:00(영) Tel: (919) 222-0991, Fax: (919) 222-7777 3260 Morris Rd., Lawrenceville, GA 30046</p>	<p>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찬양회: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8:30(영) Tel: (919) 222-0991, Fax: (919) 222-7777 3260 Morris Rd., Lawrenceville, GA 30046</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찬양회: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후 8:00(영) Tel: (251) 979-5488, Fax: (251) 979-5488 3419 Arive Ave., Ft. Rucker, TX 75904</p>	<p>타코마사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찬양회: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영) 공회예배: 오후 8:00(영) Tel: (251) 979-5488, Fax: (251) 979-5488 3419 Arive Ave., Ft. Rucker, TX 75904</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4세 이하: 오전 8:30 주일찬양회: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후 8:00(영) Tel: (251) 979-5488, Fax: (251) 979-5488 3419 Arive Ave., Ft. Rucker, TX 75904</p>
<p>렘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찬양회: 오전 10:30(영)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후 8:00(영) Tel: (480) 778-2115, Fax: (480) 778-2115 1120 E. Sunset Blvd., Chandler, AZ 85286</p>	<p>하트포트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찬양회: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 오후 8:00(영) Tel: (860) 668-4738, Fax: (860) 668-4668 35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2</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넘어가는 교회 하와이 지역</p>	<p>아가페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찬양회: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8:30(영) Tel: (808) 627-0971 1528-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부흥회: 오전 8:00 주일찬양회: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8:30(영) Tel: (808) 729-7004, Fax: (808) 729-6292 1063 5th Ave., Honolulu, HI 96813</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부흥회: 오전 11:00 주일찬양회: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전 8:00(영) Tel: (808) 577-2526, Fax: (808) 577-2522 1367 E. Bernice Ave., Hilo, HI 96724</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부흥회: 오전 8:00 주일찬양회: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공회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Tel: (808) 947-4282, Fax: (808) 947-4282 2122 Melrose Rd., Honolulu, HI 96822</p>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LA중앙노회 출범

초대 노회장 이수원 목사, 부노회장 전태준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는 LA중앙노회 설립감사예배를 26일 오후 3시 나성서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갖고 노회출범의 첫발을 디뎠다.

이날 노회는 임시회장 전태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 노회명칭을 LA중앙노회로, 이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결의했다.

초대 노회장으로 선임된 이수원 목사는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초대 노회장으로 선출해주셔서 죄송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노회장이란 직분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으로 알고 충성 다해 노회를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원조직은 다음과 같다.



KAPC LA중앙노회 설립감사예배를 마치고 새로구성된 임원단이 인사하고 있다.

△노회장: 이수원 목사(새빛교회) △부노회장: 전태준 목사(남가주 생명의길교회) △서기: 김강민 목사(사우스베이 말씀교회) △부서기: 이상준 목사(시온장로교회) △회록서기: 성기선 목사(제자한인교회)

△회록서기: 김진국 목사(기쁨의 소망교회) △회계: 이웅 목사(세계소망교회) △부회계 이재용 장로(세계소망교회).

(박준호 기자)



성전봉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현지인교회 성전봉헌식

700여명 참석 "전 세계 인류 구원선 되라"

브라질새소망교회(담임 박재호 목사)가 현지인 교회 성전봉헌식을 가졌다.

대지구명과 공사비까지 전액 부담해 1년4개월에 걸쳐 건축한 살롬성결교회(담임 Renato Martinez Costa 목사) 봉헌식이 지난 24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재호 목사 집례로 거행된 예배는 최성진 전도사가 동시통역을 맡았다. 살롬교회 찬양대의 특송, Renato 목사의 기도, 한홍국 목사의 성경봉독, 권사찬양대의 찬양이 있는 후 박재호 목사가 "성전건축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박 목사는 "오늘 새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살롬교회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한다"며 "이 성전이 이따따가세우마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홍수에서 건져내는 구원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ilton 목사(Paineira교회 담임)의 헌금기도가 있던 후 봉헌식이 거행됐으며 회중들이 기립한 가운데 박재호 목사가

봉헌사와 봉헌기도를 하고 살롬교회성전건축위원장 송무섭 장로가 공사보고를 했다.

송 장로는 "공사 중 어려움도 많았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 한국 김해제일교회와 미국 한빛교회, 연합선교회 등의 도움이 큰 힘과 격려가 됐다"며 "설계와 공사 시공 및 기술 감리를 맡으신 이수근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무섭 장로가 Renato 담임목사에게 성전열쇠를 증정했으며 열쇠를 받은 Renato 목사는 "내게 맡겨진 이 열쇠로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할 것을 주님 앞에 엄숙히 서약한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Paineira교회 찬양대의 특별찬양 후 송무섭 이수근 장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살롬교회에서는 박재호 목사와 송무섭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Armando Tavares Filho Itaquaquecetuba 시장과 Heroilma Soares Tavares 주의원, Firmino Francisco Alves 시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본사방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아기페장로교회 담임)와 서기 이원호 목사(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가 로스앤젤레스노회 분립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LA 체류 중 26일 본사를 방문했다.

로스앤젤레스노회와 LA중앙노회 분립과 창립을 지켜본 총회장 김남수 목사에게 소감을 묻자, '발전적 분립'이라고 표현하며 "비록 나누는 어려움이 없진 않지만 크게 보면 모두가 우리 총회 산하 노회이니 양 노회가 잘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히 올해 총회장으로 선출돼 총회살림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남수 총회장은 총회에 대한 비전이 그 어느 해보다 큰 듯 했다.

"사실 2-3년 동안 이런 저런 이유 우리 교단이 약간의 침체를 지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근간 총회 모임 중 이번 총회 참석률이 가장 많았고 참석한 총대들이 모두 기쁘게 총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단이 선도적이고 주도



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오른쪽)와 서기 이원호 목사(왼쪽)

적인 총회로서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장로 총대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회장은 총회에 대한 또 하나의 꿈이 있다. 그것은 교단에 속한 15세, 2세 영아권 목회자들의 참석이다. "영아권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해 교단을 위해 함께 활동해 준다면 교단이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부흥하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젊은 교단 목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고 싶다"고 소견을 비추기도 했다.

총회장 김남수 목사와 이원호 목사는 "이번 사부지역 방문목적이 로스앤젤레스 노회와 LA중앙노회 분립 외에 덴버 중부노회를 시가고 노회와 덴버 노회로 거리상 분립하는 일을 위해왔다"고 귀띔하며 지역적 분립을 위한 노회 분립을 위해 중부노회를 방문한 후 27일 뉴욕으로 돌아갔다.

한편 LA중앙노회는 26일 오후 3시 창단 예배를 드렸다.

(이성자 기자)



창립6주년 기념감사예배에 참가한자들이 예배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SB부모님선교회 창립6주년기념 감사찬양예배

사우스베이부모님선교회(SB부모님선교회, 대표 박용기 목사)는 창립 6주년기념 감사 찬양예배를 1일 오후 5시 토렌스조은교회(담임 바울 목사)에서 개최했다.

박용기 목사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이상복 장로(SB부모님선교회 이사)가 기도를, 권오달 목사(미주예장대신 증경노회장, 예전선교회 담임)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요14:1-7)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권오달 목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것, 하나님께 찬양, 감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며 "SB부모님선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선교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해 그리고 미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고 그 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국한국 연주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속',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체상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새벽닭이 운다', '내 양을 먹이랴' 등 7곡으로 구성된 베드로의 고백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영광', '믿나이다', '거룩, 거룩, 거룩',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어린양' 등 6곡으로 구성된 하이든의 전쟁미사곡은 황해경, 전승철, 권상국, 김명지 등이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합창 및 솔로를 맡았다.

(박준호 기자)



나성남포교회에서 열린 VBS에서 학생들이 크래프트를 하고 있다.

나성남포교회 여름성경학교

남가주지역 각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중인 가운데 나성남포교회(담임 한성윤 목사)에서 28일부터 30일까지 'The King is Coming'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됐다.

이번 VBS는 찬양과 율동, 크래프트,

트, 바이블스터디, 레크리에이션, 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교회 교육부 디렉터인 김규현 목사는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교사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한마음이 돼 준비됐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제50회 한인기독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인기독합창단 제50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전쟁미사곡, 칸타타 '베드로의 고백' 초연

한인기독합창단(지휘 백경환 목사) 제50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일

오후 7시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

했다.

월서연합감리교회 1층과 2층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이번 연주회에서는 하이든의 전쟁미사곡을 불렀다. 특히 이상운 장로(뉴저지 베다니감리교회)가 작사하고 백경환 목사가 작곡한 칸타타 '베드로의 고백'이 초연 됐는데 두 작품 모두 지휘자 백경환 목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것이 묻어나올 정도로 수준 높은 연주가 선보였고 이날 모인 청중들은 한국곡에 귀 기울여 감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백경환 목사는 "하이든이 작곡한 미사곡을 준비한 것은 6.25와 7월4일 독립기념일 중간에 연주회를 갖게 되어서이다. 한국의 평화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권희수 교육목사: 케미현원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1:30 주일34시: 오후 2:0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11:30 시계기도: 오전 9:00(월-목) 오후 9:30(금)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4시: 오전 8:45 주일24시: 오전 11:30 목요일: 오후 2:0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금요일: 오후 8:30			
뉴욕셋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홍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금요일: 오후 8:00	뉴욕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2:0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8:45	뉴욕립락멜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택원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2:00(월-목) 목요일: 오후 8:00(월-목) 주일34시: 오전 11:0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1:30 주일34시: 오후 2:00(월-목) 목요일: 오후 8:30 수요일: 오후 8:30	뉴욕순복음안다목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4시: 오전 7:30 주일24시: 오전 9:30 주일34시: 오전 11:30 주일44시: 오후 1: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금요일: 오후 8:30(월-목)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0:30 주일34시: 오후 1:30 목요일: 오후 8:30 수요일: 오후 8:45(월-목)	뉴욕주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1:30 주일34시: 오후 2:00 목요일: 오후 8:30 수요일: 오후 8:00(월-목)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관 1부일4시: 오전 7:15 2부일4시: 오전 8:30 3부일4시: 오전 10:15 4부일4시: 오전 12:00 5부일4시: 오후 1:30 6부일4시: 오후 3:00 7부일4시: 오후 7:30 8부일4시: 오후 8:30 목요일: 새벽 6:00(월-목)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2:00 목요일: 오후 8:30 수요일: 오후 8:00(월-목) 목요일: 오후 8:00(월-목)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14시: 오전 10:00 주일24시: 오전 12:30 주일34시: 오후 2:30 주일44시: 오후 5:00 목요일: 오후 8:30 수요일: 오후 8:30(월-목)	폰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혁형 주일14시: 오전 11:30 주일24시: 오전 8:45 주일34시: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수요일: 오후 8:30	베다니교회 담임목사: 장동관 주일14시: 오전 7:30 주일24시: 오전 9:45 주일34시: 오전 11:30 주일44시: 오후 1:30 목요일: 오후 8:30 수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월-목)	어린이교회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30 주일34시: 오후 2:30 목요일: 오후 8:30 수요일: 오후 8:30	유니온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재철 1부 기도회: 오전 8:00 2부 기도회: 오전 9:30 3부 기도회: 오전 10:45 4부 기도회: 오후 2:30 목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곤 주일14시: 오전 12:30 목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14시: 오전 12:00 주일24시: 오후 2:00 목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24시: 오전 12:00 목요일: 오후 8:30	핀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0:30 주일34시: 오후 1:30 주일44시: 오후 2:30	핀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14시: 오전 8:30 주일24시: 오전 11:30 주일34시: 오후 1:30 목요일: 오후 8:30	한미음침교회 담임목사: 박아미 주일14시: 오전 11:30 주일24시: 오전 8:30 주일34시: 오후 1:30 목요일: 오후 8: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교회 찾습니다 L.A.: Tel: (310)695-0000 E-mail: hcsnews@earthlink.net N.Y.: Tel: (718)695-6400 Fax: (718)695-0074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24시: 오후 2:00 목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4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1:00 주일34시: 오후 2:00 목요일: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45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0:30 주일34시: 오후 2:00 목요일: 오후 8:30 목요일: 오후 8:30	아르헨티나 제임교회 담임목사: 최병연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24시: 오전 11:30 주일34시: 오후 2:30 주일44시: 오후 3:30 주일54시: 오후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희상 주일14시: 오전 11:00 주일24시: 오후 7:00 주일34시: 오후 7:45 목요일: 오후 8:30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현근 목사 목회: 김민호 목사 주일14시: 오전 8:00 주일24시: 오전 10:30 주일34시: 오후 2:00 목요일: 오후 8:00(월-목)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초대교회 성막 및 성극 '요나' 관람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여선교회가 주관하는 성막 및 성극 '요나' 관람이 오는 10일(화) 오전 7시 출발한다. 장소는 펜실베이니아 랭카스터로 회비는 성인 90달러, 아동 50달러. 입장료와 삼식이 제공된다.

▲문의: (718)639-3021, (347)256-6147

KYC, 미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자적 획득

뉴욕청소년센터(KYC, 디렉터 최지호 목사)가 미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 자격을 얻고 첫 시상식을 지난 30일 오후 5시30분 KCS(뉴욕한인봉사센터) 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각 학교사이트에서 사역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 2명, 은상 10명, 15명을 시상했다. 또 디렉터 최지호 목사가 주는 상들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사진). 뉴욕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각 고등학교 사이트에서 15명이 졸업했으며 각 사이트 책임 사역자들은 이들을 위해 안수기도 했다.

▲연락처: (718)353-1388, (646)824-1857



퀸즈장로교회 여름성경학교 뮤지컬 장면

뉴욕일원 각 교회들 앞다퉀 여름성경학교 개최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뉴욕지부 새회장 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뉴저지 목사회 신임 임원단.

한기부 뉴욕지부 2대 회장 취임식

김영환 목사, "열심을 품고 영혼구원에 힘쓰겠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 대표회장 정도출 목사) 뉴욕지부 회장 취임식이 지난 26일 저녁 대동연회장에서 열려 김영환 목사(뉴욕호성교회 담임)가 제2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영환 신임 회장은 "뉴욕지역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 영혼구원을 위해 일하겠다"며 "여러 목사님들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취임사를 했다.

1부 예배는 이종명 목사 사회로 기도 황영진 목사, 성경봉독 박정오 목사, 특별찬양 밀알선교함장단, 말씀 정도출 목사, 이임사 및 환영인사 황경일 목사, 공로패 증정 황경일 목사 외 전 임원단, 취임사 김영환 목사, 축사 송일현 목사 김중덕 목사, 광고 이준성 목사, 축도 노기승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도출 목사는 샅1:1-7을 본문으로 "새 시대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인데 영적 세계의 지도자는 더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본문에서 보면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이스라엘에 탁월한 지도자가 없으나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속에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세 번째는 독불장군 없는 시대이므로 협동해야 한다"며 뉴욕에서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의 맥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1대 지회장을 역임한 황경일 목사는 "1대 회장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며 "새 회장인 김영환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협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교제 및 만찬은 김병천 목사 사회로 만찬 기도 김진화 목사, 특별찬양 안영수 선교사, 폐회기도 박진하 목사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지인식 목사부부가 특별찬양을 했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목사회 신임회장에 이우용 목사

뉴저지목사회 신임회장에 이우용 목사가 선출됐다. 뉴저지목사회는 지난 25일 뉴저지중앙교회(담임 이우용 목사)에서 제3회 총회를 갖고 2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2대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우용 목사 △부회장 이병준 목사(행복한교회) △총무 박찬순 목사(임마누엘성결교회) △서기 권형덕 목사(참아름다운교회) △회

계 이은혜 목사(뉴저지교회) △감사 양부환 목사(참소망교회) 박정희 목사(세계복음선교교회).

신임회장 이우용 목사는 화합을 바탕으로 은퇴목회자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업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또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선교와 복음전파에 힘쓰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복음화대회 마지막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실질적인 뉴욕복음화 이루자!"

2012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마지막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이 오는 6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2012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를 앞두고 지난 2일 4차 마지막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에서 열린 준비기도회에서 대회장 양승호 목사는 "38회기를 시작하면서 교회 일치와 화합을 위해 임원들이 기도해왔다. 여러 이야기가 들렸지만 맞대응하지 말고 기도해왔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대회를 통해 뉴욕에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실질적으로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도 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기도회는 김종훈 목사 사회로 이광모 장로 기도, 김금옥 목사 성경봉독, 이승재 목사 설교, 특별통성기도 김영철 목사, 안승백 목사, 오태환 목사, 광고 현영갑 목사, 축도 안

창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준비위원장 이광희 목사는 "38회기가 시작되면서 뉴욕교계의 문제로 많은 교회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문제인 재정으로 많이 고민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회원교회까지 적극 협력한다면 작년 수준의 2배가 될 줄로 믿는다"고 말하고 "최대한 협조해주셔서 이번 성회가 은혜 가운데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교협 임원단은 중심으로 지난 30일 낮 할렐루야복음화대회 홍보를 위한 노방전도 및 가두행진을 가졌다. 전도대들은 노던 169가에 위치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 집결해 함께 기도한 후 유니온 스트리트까지 행진했다.

(유원정 기자)

목회자와 부흥사의 차이 강의

한기부 뉴욕지부 제2회 부흥사연수 세미나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뉴욕지부가 주최한 제 2회 부흥사 연수 세미나가 지난 27일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양순관에서 열렸다. 강의는 유종현 목사(증경회장), 정도출 목사(대표회장), 송일현 목사(상임회장)가 맡았으며 등록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첫 강의를 맡은 유종현 목사는 "목회를 알고 목회를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첫째, 가정목회의 중요성 둘째, 목회와 부흥회의 차이 셋째, 부흥사의 관리에 대해 강의했다. 유 목사는 부흥사는 (1)건강관리 (2)인격관리 (3)설교(메시지)관리 (4)성대관리 (5)인어관리 (6)성도관리 (7)의상관리 (8)표정관리 (9)시간관리 등 부흥사들이 알아야 할 팀에 대해 강의했다.

유종현 목사는 또 실제적인 목회에 있어서는 △언어와 목회 △성경과 목회 △윤리와 목회 △영성과 목회 △행정과 목회 등에 대해 설명하며

지식적 목회와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다며 기도와 말씀이 뒷받침 된 성령체현의 목회를 하라고 강조했다. 2강을 맡은 정도출 목사는 "부흥사로서 긍지를 가지라"며 "한기부가 한국교계의 영성을 깨우던 목사들로 맥을 이어온 단체다. 신현교 목사님을 오랫동안 모셨지만 부흥사가 되려는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고 첫 부흥회에 나갔던 때를 회고하며 "영적인 출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부흥사는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한다"며 "부흥사는 담임목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 집회하는 교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하고 첫날부터 불붙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질, 이성 등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강은 송일현 목사가 맡아 "부흥사의 힘은 말씀과 기도이다"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유원정 기자)



새생명선교회 후원음악회에서 뉴욕미션오케스트라가 공연하고 있다.

암환자 위한 '사랑의 음악회' 개최

새생명선교회, 뉴욕미션오케스트라 초청

암환자를 돕는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를 후원하는 제 6회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28일 저녁 플러싱 타운홀에서 뉴욕미션오케스트라(단장 유진웅 집사)를 초청한 가운데 성황 가운데 열렸다.

심의례 전도사는 이번 음악회와 관련해, "2005년 셋째 주 월요일 6명의 암환자들이 강해진 내과에서 시작한 '새생명선교회' 모임이 벌써 8년이 됐다"며 "매월 정기모임을 갖다 보니 경제적인 비용을 환자 부담으

로 할 수 없어 2007년부터 음악회를 열게 됐고 벌써 6회째를 맞은 것에 감사하"고 말했다.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암을 고쳤고, 다시 힘을 얻어 암환자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에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인사했다.

KRB 방송인 한지인 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총재 황 의 영 목사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기독교생활개혁신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BAL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채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동역원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30년 전통

뉴욕고려소방가게 뉴욕음식점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역 등대 주일은 쉽다

맨해튼: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647-8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8-0201

ADIDAS DYNAMIC WORLD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Yoo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9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힐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7월 22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 남가주목사회, 기독회관건립위해 성가대합창제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는 기독회관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성가대합창제를 오는 7월 22일(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갖는다. 이를 위해 목사회는 28일 오후 1시 타운 내 오대산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독회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성가대합창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남가주 목사회 관계자들(사진 왼쪽부터 허귀암 총무, 이우형 부회장, 김영대 회장, 전중재 교수, 정중윤 부회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대 회장은 “기독회관 건립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 목회자들이 협력해서 이 사업이 은혜롭게 마무리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왔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실시된 일일 식당에 이어 두 번째로 갖는 기독회관 건립 기금마련 행사로 성가대합창제를 연다. 이 행사를 통해 평신도

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교회들과 목사회는 물론 다른 기관까지 기독회관 건립에 동참해 기독회관 건립이 모두가 협력해서 세워질 수 있었

으면 한다”고 밝혔다.
출연진은 남가주사랑의교회 찬양대(지휘 이영진), 은혜한인교회 성가대(지휘 윤태중), 목사장로부부찬양단(지휘 전중재), 극동성가단(지휘 조한우), 코탈레움선교합창단(지휘 이경원), 캘리포니아마스터코랄(지휘 김원재), 레위남성합창단(지휘 박명규), LA남성선교합창단(지휘 원영진), 이화보컬앙상블 & 솔리스트(지휘 엄인용), 웨스트힐장로교회 아이노스 여성중창단(지휘 김혜정) 등이다.

한편 목사회에서는 기독회관 건립마련을 위한 세 번째 사업으로 연말 뱅킹을 준비하고 있다. 뱅킹에 참가하는 대상은 평신도 지도자, 1.5세와 2세 전문직종사자 및 경제인들을 총망라해 초대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714)308-7308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시총회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는 임시총회를 9일(월) 오전 11시 풍성한교회(담임 박훈우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공식인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해 열리게 된다.
▲문의: (714)308-7308 허귀암 총무

미전도 미개척종족 세계선교대회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미전도 미개척종족 세계 선교대회를 9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개최한다.
▲문의: (213)975-1111

오페라캘리포니아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오페라캘리포니아소년소녀 합창단(단장 노성혜) 제 28회 정기공연이 14일(토) 오후 7시 동양선교회에서 개최된다. 한편 정기공연을 마친 합창단은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함께 한국을 방문 순회공연에 들어간다.
▲문의: (323)936-2567

한길교회 말씀축제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가 13일(금)부터 15일(주일)까지 한길 말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말씀축제의 강사는 한규삼 목사(뉴저지주 대교회 담임).
▲문의: (323)735-0200

백기현교수 찬양간증집회

풀러턴에 위치한 한마음교회(담임 심상래목사)는 55년 동안 등이 굽은 채로 살아오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받고 감사와 찬양을 증거하는 백기현 교수(공주대학교) 찬양간증집회를 개최한다. 집회일정은 14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15일(주) 오전 11시.
▲문의: (714)257-1003



VCS가 주관한 LA사랑의 무료개안수술 캠프 감사의 밤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VCS, 사랑의 무료 개안수술 캠프 14명 환우들 광명의 기쁨...24일 감사의 밤

의료선교단체인 비전케어서비스(VCS) 미주서부(이사장 알렉스장)가 실시한 'LA사랑의 무료 개안수술 캠프'를 통해 14명의 환우들이 광명의 기쁨을 가졌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세인트 빈센트 안과 수술센터에서 시행한 이번 캠프에서는 7명의 안과 의사(서영석, 박건준, 조성진, 한스김, 사만다 최, 이찬주, 조셀미)들이 수술에 참여했다. 지난 24일 오후 6시30분엔 옹공 식당에서 이들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수술 받은 14명의 환우들에게 축하의 메

시지를 전하는 감사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알렉스장 이사장은 “사랑의 무료 개안수술 캠프 참가신청자 중 40여명이 수술 요청을 했다. 그러나 수술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 분들이 14명이었다. 앞으로 비전케어를 통해 의료 선교를 계속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광명의 기쁨을 드리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전케어문의는 (213)281-2617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찬양사역자 강명식 교수의 콘서트가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사진은 29일 저녁 사랑의빛 선교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는 강명식 교수와 찬양팀)

찬양사역자 강명식 콘서트

찬양사역자 강명식 교수 콘서트가 29일부터 7월1일 저녁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29일 저녁 7시30분 사랑의빛선교회(담임 최혁 목사)에서 열린 첫날 콘서트에서 강명식 교수는 ‘주와 같이 길가는 것’, ‘내 아버지 집에는’, ‘승리’ 등을 불렀다.

이날 강 교수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며 신앙인으로 자랐지만 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하며 “아버지라는 표현이 불편한 건 나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커서였다. 그 불편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의 체험으로 이러한 불편함은 치유됐다.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픔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나아가는 자들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강 교수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며 신앙인으로 자랐지만 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하며 “아버지라는 표현이 불편한 건 나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커서였다. 그 불편

이번 강명식 콘서트는 30일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일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LA기윤실 기획포럼에서 한반도평화 연구원 윤환철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기윤실 '통일 앞당기는 교회' 기획포럼 “바람직한 대북지원과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통일을 앞당기는 교회’란 주제로 LA 기윤실이 주관한 기획 포럼이 지난 25일 오후 7시 캘리포니아 인더내셔널대학 강당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실무 간사 박상진 씨의 사회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한반도평화연구원 윤환철 사무국장은 “미주 한인교회들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조를 위한 대북 접촉의 실제적인 문제점 등을 지적

대상 지역의 편중성(대부분 평양에 집중), 모니터링 관련문제(모니터링 일정은 짧은 반면 금수산 기념공전, 만경대, 아리랑 공연 참가 등), 3통(통행, 통신, 통상)문제, 협상과 사업진행의 문제점(영통한 일로 협상주도권 장악시도), 지나친 친근, 성급한 진행, 과다한 물자요구, 완제품 아닌 원료자재 요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가 북한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을 추구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을 도울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날 패널토론자로선 박문규(CIU) 학장, 성현경 목사(파사데나장로교회), 최순교(탈북인 사역자) 씨가 참가했다.

윤 사무국장은 “우선 민간대북관계의 상호성 불일치(남측은 세계와 수많은 기독교 기관이 있지만 북한은 오직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사업

(정리: 박준호 기자)

남가주기쁨의교회 부흥성회

남가주기쁨의교회(담임 이황영 목사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는 서울 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 초청 2012년도 부흥성회를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했다. 24일 11시 본 교회 대강당에서 200여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 2부 예배는 이황영 담임목사의 사회로 하종철 장로 기도애 이어 김동호 목사가 등단 ‘사랑과 책임’(마 5:38-48)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부흥되고 은혜로운 것은 오로지 당신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면 이는 전적으로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성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래, 아님 매를 맞은 후에 억지로 할래? 남을 돕고 사는 것은 재미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면



제32회 남가주기쁨의교회에서열린 2012년도 부흥성회 에서 강사로 나선 김동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교회는 27일부터 30일까지 교회학교

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오픈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자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불만식, 세미나, 각종행사
아르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 L.A., CA 90010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www.laquesthouse.com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8 (올림픽 길스 건너편)
Tel. 213.487.5446 Cell. 213.683.9181 Email. laquesthouse@live.com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다양한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떠나는 미주크리스천신문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부산교계, 내년예정 WCC 부산총회 철회 촉구

“완전 철회까지 한국교회와 강력 대응해 나갈 것”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예정된 부산 지역 교계에서 ‘총회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부산·경남 지역은 WCC 주최 측인 통합이나 가장보다 고신이나 브니엘 등 보수 측의 교세가 더 강한 곳이다.

지난 22일 오후 3시 부산 연산동 브니엘신학교 강당에서 열린 철회 촉구 기도회에서는 ‘WCC 부산총회 철회요구 선언’이 발표됐다. 집회 주최 측인 예수한국은 “WCC 한국준비 위원회가 NCKK 소속 교단 지지를 앞세워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이를 환영하는 것처럼 홍보해 왔고, 보수 교회들의 반대와 논의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이번 선언은 총회 개최 ‘반대’가 아니라 ‘철회 촉구’임을 주목해 달라”고 밝혔다.

집회에서 부산·경남 기독교계 선구자인 중앙선교회 박성기 회장

(브니엘신학교 이사장)은 “WCC는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결국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부산총회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한국교회와 함께 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배 설교는 정판술 고신 중경총회장이 맡았다.

특강을 맡은 최덕성 박사(기독교 사상연구원장)는 “WCC는 종교다원주의·종교대화주의·종교혼합주의를 추구하고, 심자가 구원의 도리를 배제한 ‘하나님의 선교’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신칭의 구원론에 기초한 개종 및 전도활동을 금한다면 ‘반기독교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신학총독: 기독교와 세계교회협의회”를 발간한 최 박사는 “WCC는 구원을 인간화와 혁명투쟁으로 보고 있고, 로마카톨릭과의 일치 추구를 하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라 믿지 않는 등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향주 교수(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는 현대 신학의 동향과 WCC의 반기독교·종교혼합적 성격을 비판했고, 김경철 교수(고신대)는 “WCC 부산총회는 중등학교 정문 앞에 유홍시설이 들어오는 것과 같으므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예수한국 WCC대책위원회가 채택한 ‘WCC 부산총회 철회 촉구 선언문’에서는 WCC의 반기독교적 신학 10가지와 부산총회가 가져올 독성 5가지를 제시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WCC가 포용주의와 다원주의, 신앙무차별주의를 조장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며, 역사적·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교회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37%가 크리스천

기독교원 성공적 의정활동 위한 조찬기도회

오랜 전통 끝에 마침내 2일 개원하는 제19대 국회는 전체 의원의 3분의1 이상(37.1%, 새누리 56명, 민주당 47명, 통합진보 4명, 자유선진 1명, 무소속 4명 총 111명)이 기독교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국내 평균 기독교인 비율(19%)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는 그 어느 국회보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서 드러날 것으로 기대됐다.

기독교원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한 마음으로 각오를 다졌다. 이런 분위기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국회조찬기도회와 새대한민국국

가조찬기도회가 주최하고 세계성서화운동본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주관한 ‘제19대 기독교 국회의원의 성공적 의정활동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기독교 국회의원과 교회 지도자 등 200여명은 국회 개원에 감사하며 이 나라와 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다.

세계성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김성영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김삼환(명성교회) 목사는 “권력은 유한한 것일 뿐”이라며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설교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조금은 ‘예수

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의원 생활을 해보자”고 권면했다.

기도회에서는 여야 구분이 없었다. 모두 한마음이 돼 기독교원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했다. 임내현(민주통합당) 의원은 “빛과 소금이 되는 기독교인 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국회조찬기도회장 황우여(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기도회에 앞서 19대 국회 개원 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9대 국회도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전병금 목사는 “기독교원들은 한국교회가 파견한 ‘정치 선교사’이자 ‘선지자’”라며 “답답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기독교원의 사명을 강조했다.

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이 신천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풀이된다.

신천지는 지난 2010년 인천 부평구 청천동일대에 3,135제곱미터의 면적을 사들였지만, 6차례에 걸쳐 진행된 부평구청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신천지가 전국적인 조직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관공서 업무를 마비시키고 시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신천지는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신천지는 지난해에도 조직적 댓글 테러를 실시해 신천지 교리를 담은 태극기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재전시하는 집요함을 보인바 있다.

신천지, 부평 건축위해 관공서 압박

조직적 댓글 지시...관공서 업무방해 등 테러 수준

이단 신천지가 자신들의 종교시설 건축을 위해 해당구청에 댓글 달기를 지시하는 등 조직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BS는 취재결과 신천지는 인천 부평에 대형 종교시설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번번히 건축위원회 심의가 부결되자 전국적인 조직을 이용해 관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인천광역시청과 부평구청 시민참여 게시판이 신천지교회 건축을 허가하라는 내용의 글로 뒤덮였다. 평소 한 달에 10건 미만인 민원 글이 지난 17일부터는 하루에 1천

여 건에 달하고 있다. 게시판 글 내용은 하나같이 신천지가 추진 중인 인천 부평 청천동일대의 종교시설 건축을 허가하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신천지 내부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CBS가 입수한 신천지 측 음성자료에 따르면 “부평구청에는 제안마당과 자유게시판 쪽에(댓글을 올리면)되고요. 종합건설본부는 시민제안, 건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시면 되고요. 시청에는 시민의소리, 시장에 바란다 세 곳을 이용하라”며, 구체적인 댓글 테러를 지시했다.

신천지가 이렇듯 여론 조작행위까지 나선 이유는 수차례 진행된 건

헌법을 초월한 종교편향 논리

[미선라이프]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과도한 종교편향 논리가 한국사회의 종교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불교계에서 시작된 종교편향 논리는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도구로 악용돼 왔다. 공직사회부터 중립학교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다. 3회에 걸쳐 종교편향 논리의 위험성을 짚어보고 실제 사례를 찾아본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불교계가 종교차별 내지 편향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헌법정신을 흔들고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불교계의 주장과 달리 종교차별이나 편향 여부는 ‘현행 법령과 규정만으론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재’도 “종교차별 논란은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며 검찰 법원 등 세속 권력이 종교성을 판단하는 게 오히려 정교분리에 위반된다”고 언급할 정도다. 이 때문에 외국에는 입법 사례조차 없다.

서울시 봉헌·敎洞협의회 구성... 공직자 신앙고백까지 정교유착매도

◇헌법이 말하는 진정한 정교분리=이 같은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차별 내지 편향 여부를 확실하게 가려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바로 정교분리 원칙의 준수여부다. 정교분리의 기준에 대해서는 참고할만한 판례들이 있다. 미국에서 정교분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밝힌 기념비적 판례는 1984년 린치 도넬리 사건이다. 미국 포터킷시가 매년 공원에 야기 예수 등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연방 대법원은 “행정적으로 유착했거나 관련 교회와 시당국이 전시물의 내용이나 디자인을 협의한 증거가 없고, 야기예수상의 보존·유지에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시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법원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

다. 정교분리의 판단기준을 정부와 종교간 행정 유착 및 재정지원 여부에서 찾은 것이다. 또 종교적 목적이 아닌 세속적 목적(공공복리 등)을 위한 협력은 정교분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불교계가 주장한 종교차별= 불교계는 그러나 행정·재정 지원과 상관없이 종교 차별 내지 편향이 있다며 교계를 공격해 왔다. 종교편향으로 지목된 대표적 사례는 서울시 봉헌 발언, 교동협의회 구성, 시 예산의 성시화 사용 등이다.

‘서울시 봉헌’ 발언은 서울시장이 주일 기도회에서 했던 신앙고백이다. 고위 공직자라도 종교행사에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는 법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동협의회

는 자치단체와 지역교회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소득층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반면 ‘시 예산을 성시화에 사용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이라면 정교분리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는 물론 지역 교계에서도 불교계에 의해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행정·예산지원 유착관계 살펴 보라=불교계는 이들 세 가지 사례를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대표적 종교편향으로 몰아가면서 종교

차별금지법 입법을 요구했다.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불교계에서조차 “종교차별 관련 입법요구가 법리상 비합리적 요소가 많고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 또한 감정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국은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에 정교분리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종교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를 악용함으로써 해석해 타 종교를 해체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일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도 “우리 법은 공공복리 등의 세속적 목적이 아닌 포교를 목적으로 공권력과 종교가 유착됐을 때만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이 원칙에 따라 종교차별 문제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청의 교회 카페 과세 파장

교회가 법과 기준에 안일대응 결과 지적도

[CBS] 강남구청이 교회나 복지시설 등 비영리 단체의 수익 활동에 대해 세금을 추정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적법한 과세라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의 다른 과세 기준이 비영리 종교 기관의 무더기 세금 추징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남구청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수익 사업을 벌인 교회와 복지재단 11곳에 대해 세금을 추정하기로 함에 따라 교회를 비롯한 비영리 종교 기관들에 비상이 걸렸다.

강남구청은 소망교회와 청운교회, 밀알복지재단 등 11곳에서 카페와 미술관, 공연장 운영을 통한 수익 활동을 해 면제된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라는 명목으로 앞다퉈 교회 카페를 열었던 교회들과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

여온 복지단체들이 무더기 세금 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화 선교 전문가들은 이번 추정 사태에 대해 교회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법과 기준에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회를 비롯한 비영리 종교기관들이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수익 사업들을 벌였지만, 실정법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이다.

임성빈 교수(문화선교원장)는 “사회를 위해 섬기고자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교회의 의도와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시민 사회가 마련한 기준과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무더기 과세 추정 사태가 국세와 지방세의 다른 과세 기준 때문에 비롯됐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회계 전문가들은 국세의 경우 비영리 종교 기관이 수익 사업을 벌여 나온 수익금으로 비영리 목적에

사용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수익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더라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교회나 기관들이 분의 아니게 탈세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최효운 회계사(제일회계법인)는 “교회가 받았던 수익금을 목적 사업에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 국세와 동일한 체계로 해야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상황은 교회의 의도적으로 탈세하려고 안 낸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강남구청 조서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강남구청이 관내 비영리 종교 기관 등 350곳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교회를 비롯해 기독교계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강남구 관내 일부 사찰에서는 유료 주차장과 불교 용품점을 운영했지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흥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바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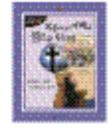
- 주일 낮 예배(영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찬양의 초대, 찬회기도, 묵회기도, 헌금기도, 위락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예배(영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위한 예배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 수요일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짐, 전도 등)
- 금요일 예배(금요일 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영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파워포인트 중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치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흥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일 제공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lian.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 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KCDC예회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회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 부실(도서출판 글로리아)을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에세이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kcdc.net
이메일 - kcdc@chollian.net

전화 - (02) 824-5004
팩스 - (02) 824-4231-4232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685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해피 라이프 (9)



석은옥
(고 강영우 박사 부인)

뜻밖의 기회, 그리고 남편의 응원

나는 28년간 미국 인디애나 주 개리 시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 시각장애교사로 근무했다. 취직을 한 것은 1977년의 일인데, 정말 우연히 찾아온 그 기회가 없었다면 과연 내가 교사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싶다.

당시 남편은 인디애나 주 교육위원회에 취직된 지 2개월쯤 되었고 나는 차로 그의 출퇴근을 도왔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남편 직장의 과장이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어떻게 맹인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지요?” 남편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며 8년전 펜실베이니아에서 맹인 교사 연구과정을 1년 동안 밟으며 보행지도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이야기했다.

“아 그러세요?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 교사를 찾고 있었거든요. 필요한 서류만 몇 개 작성해 보내 주시면 바로 일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1975년 미국에서는 장애아교육법이 제정, 통과되었는데, 그에 따라 장애의 종류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이 일반 공립학교에서 무상 공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기독교에서만 지내던 장애 학생들이 공립학교로 불렀고, 자연히 공립학교의 특수교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그래서 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든 특수 교사로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마침 보행지도교사 자격증을 가진 내가 적격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뜻밖의 제안,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와 어리둥절했다. 마음의 갈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그것은 꽤 오래전의 일이고 8년전 미국에서 받은 교육만으로는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이제 9개월 된 진영이와 네 살 된 진석이 돌보며 엄마이자 아내 역할에 충실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일을 시작한다면 힘들고 어려울 것이 뻔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혼자서 교사 월급을 받는 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우리 둘 다 이렇게 취직이 되는 축복을 받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어요? 집안일은 나도 좀 도울 테니 너무 걱정 말고 한번 도전해보요.” 남편은 실용적인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나를 믿어붙였다. 다소 망설였지만 사실 내 어릴 적 꿈이 페스 탈로치처럼 어린이를 사랑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 꿈대로 15년전 맹인 소년을 만나 맹인 교사로 훈련받았고 나아가 그의 반려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미국에서 맹인 교사의 꿈을

펼칠 기회를 주신 것이 맞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늘 저를 모험의 길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저의 등 뒤에서 늘 저를 도우시는 주,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저를 밀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일어나 걸으면 새 힘을 제게 주고 저를 돕겠다고 하신 하나님, 당신을 믿고 가겠습니다.”

갈등으로 번잡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원을 결심했다.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내 꿈을 이룰 이런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용단을 내린 것이다. 학부과정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밟은 것이 문제가 됐지만 나를 추천해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교사가 되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한 발을 내딛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준 그분들의 추천사, 나는 아직도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1977년 3월 나는 인디애나 주 개리 시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 시각장애 교사가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의 1인3역도 시작되었다. 새벽에 일어나 진영이가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진석이 옷을 입히고 남편의 아침을 차려주고 점심 도시락을 만들었다. 그리고 빵 한 쪽과 물을 들고나와 남편과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집을 나섰다. 진영이는 옆 아파트의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진석이는 탁아소에 내려준 후 남편을 출근시킨 후에야 일터로 향하며 빵을 먹고 물을 마시며 한숨 돌려 그날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준비했다.

답답하는 아이들의 지도를 위해 여러 학교를 방문해야 했기에 운전하는 시간이 많았다. 겨우 한 시간인 점심시간에는 9개월 된 둘째가 너무 보고 싶어 매일 베이비시터의 집으로 달려가 진영이를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점심도 직접 먹여주곤 했다.

그렇게 빠듯하게 하루를 보낸 뒤, 퇴근하는 남편을 데리러 가서 차에 태운 후 탁아소에 들러 진석을, 마지막으로 진영이까지 데리고 집으로 왔다. 그렇게 온 식구가 반갑게 모두 모여 잠시 쉬고 아침에 다하지 못한 실거지부터 저녁준비, 아이들 빨래와 청소를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아이들 목욕을 시키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책도 읽어주고 다음 날 식사준비로 장까지 갔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나는 정말 수퍼우먼이었다. ‘병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구나’ 싶을 정도로 하루도 빠짐없이 맡은 일을 감당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다.

(다음호에 계속)



석은옥 여사



선교지 편지

에티오피아

살림!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소우기로 접어들어 하루에 한번씩 비가 내리고 있고, 낮에는 햇볕이 짹짹 쪼고 있습니다. 앞마당에 심은 메밀 씨는 하얀 꽃을 피웠지만 열매가 없는 쪽정이 많아요. 춘천에서 가져온 좋은 씨를 가져왔지만 아프리카 땅에 맞지 않아 개량이 필요하답니다. 좋은 씨도 적응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 지난 18여년 동안 이 땅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1. 집마 회개기도 대성회를 위해 국제 사랑의 봉사단 20주년 특별팀과 황성주 박사가 오셔서 30,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와 의료 사역에 감사드리며
2. SIM Ethiopia 카운슬에서 아디스아바바 목사제도 훈련을 진행할 것과 11월 카운슬에 프로젝트를 상정하도록 요청 받았습니.
3. 대선이의 2차 NY CPA 시험 패스에 감사드리며 지원의 새로운 The School of Philadelphia 학교에서 교사로 영입에 감사드리며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집마 회개기도 대성회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황성주 박사와 사랑의봉사단 20주년 특별팀이 오셔서 의료와 말씀으로 약 30,000여명이 모여 말씀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집마 지역의 647개 교회에 40일 특별 금식을 선포했고 목회자 150여명이 강단에 초청되어 집중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무슬림이 97%인 집마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

길 바랍니다.

집마 방화교회 재건축

67교회 중 금번 방문한 국제 사랑의봉사단 20주년 특별 기도팀에서 2개의 교회를 재건축하고, 계속해서 재건축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동산교회와 덴버의 삼성교회 이훈동 목사님께서 재건축에 동참하기로 했고 한국의 CGN TV에서 회개기도 대성회와 집마 지역 무슬림 방화 교회건을 뉴스로 소개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남서부 노회 안에 67개의 교회가 무슬림에 의해 방화(CGN TV 통신원 뉴스 참조)되었는데 방화로 1명이 죽고, 그중 43개 교회가 저희 노회 소속이고 대부분의 저희 신학교 졸업생 목회자들이 사역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방화한 모든 교회를 재건축하라는 명령을 받고 무슬림들이 진흙과 지푸라기로 건축을 했으나 무슬림 지역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아 그곳에 다시 무슬림들이 견제하지 않도록 교단 본부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교단은 생명의 말씀(Word of Life)으로 현재 8,200만 교회와 7,500만 명으로 부흥되어 에티오피아에서 전도와 교회 개척에 열심 있는 교단입니다.

건축 예산: 1. 가로 세로 10x10미터면 7,000불정도로 자재만 사주고 건축은 교인들 중심으로 합니다. 2. 가로 세로 11x15미터면 25,000불정도 건축이 들어갑니다. 3. 그 후 단기 선교 팀과 헌신 오시면 장의자만 들고와 페인팅 마무리 작업 함께하면 됩니다. 4. 지역 몇몇 교회와 연합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셔서 초대 교회 전도자의 빌립 사역과 시바여행...법규를 보시면 성지순례가 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여름 컨퍼런스 2012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 중심으로 의료와 함께 젊은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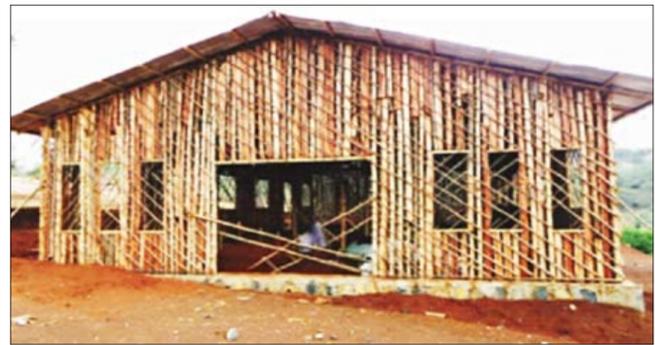
△일정: 2012년 7월 12-21일 △장소: 집마 지역의 지렌 교회와 집마신학교 기숙사 △강사: 황성주 박사 외 국제 사봉과 이룬 공동체 47명, 모든 참가자 환영합니다.

박종국 장은혜 선교사

▲이메일: cush-park@gmail.com



임시텐트에서 예배중 성도들 모습



재건축 예정 모델 교회 모습

세계로떠나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계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77, Fax: (02)525-822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6-2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031)321-8724, Fax: (031)321-8724 경기도 군포시 신성동 879-10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famman.org Tel: (02)422-0222, Fax: (02)422-434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118-211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http://www.gimpo.org Tel: (02)422-0222, Fax: (02)422-4622 경기도 김포시 수송동 201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김천신일교회: 오후 8:00 Tel: (031)329-6418, Fax: (031)329-6434 2-11-9 신일로 신일동-111, Kyju, Korea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Tel: (031)379-8889, Fax: (031)379-8889 2-11-9 신일로 신일동-111, Kyju, Korea	돈돈한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주일7부예배: 오후 9:30 Tel: (031)379-8889, Fax: (031)379-8889 (97420-6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인동 1879-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9:00(예배) Tel: (02)422-0222, Fax: (02)422-4343 VIA DEI QUANTINI 23-26 00173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세계기도: 오전 4:00 (144)441 488 Tel: (031)321-8724, Fax: (031)321-872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정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세계기도: 오전 9:00 (144)441 488 Tel: (02)422-0222, Fax: (02)422-434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사예멘교회 담임목사: 소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세계기도: 오전 9:00 (144)441 488 대표전화: (02)422-0222, Fax: (02)422-434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세계기도: 오전 9:00 (144)441 488 Tel: (031)329-6418, Fax: (031)329-643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명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www.seonshil.org.kr Tel: (031)329-6418, Fax: (031)329-643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상일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9:30 (144)441 488 Tel: (031)329-6418, Fax: (031)329-643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Tel: (031)329-6418, Fax: (031)329-643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인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329-6418, Fax: (031)329-643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승문교회 담임목사: 박정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422-0222, Fax: (02)422-434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세계기도: 오전 9:00(월-토) Tel: (031)329-6418, Fax: (031)329-643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진용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세계기도: 오전 9:00(월-토) Tel: (031)329-6418, Fax: (031)329-643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Tel: (031)379-8889, Fax: (031)379-888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인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주일7부예배: 오후 9:30 Tel: (031)379-8889, Fax: (031)379-888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10:30(오후 7:30) 세계기도: 오전 9:00 Tel: (031)329-6418, Fax: (031)329-643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31)329-6418, Fax: (031)329-643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세계기도: 오전 9:00 Tel: (031)329-6418, Fax: (031)329-643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9:30 Tel: (031)329-6418, Fax: (031)329-643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장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1)329-6418, Fax: (031)329-643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정주주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세계기도: 오전 9:00 Tel: (031)329-6418, Fax: (031)329-643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9:30 Tel: (031)379-8889, Fax: (031)379-888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54-450)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13)

3. 예배중심의 교육

(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교회 중심의 교육이며, 둘째는 그것이 "이중문화적/이중 언어적 교육(Bi-cultural/Bi-lingual Christian Educatio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성격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한인 기독교 교육의 성격은 그것이 "예배중심의 교육(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인 교회들이 특별히 의도적으로 그 교육적 노력들을 함에 있어서 예배라는 형식에 치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한인 교회의 실질적 기독교 교육이 있어서 "예배의 비중이 높다"라는 현실적 진단에서 기인한 진술입니다(오늘의 이야기에서 예배는 예배로서의 독립적 가치만을 가지는지 혹은 기독교 교육의 일환인지에 대한 학문적 신학적 논쟁들을 다루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예배의 본질이나

를 제외하고는 거의 명목만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교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정기적이고 꾸준한 성인들을 위한 성경 및 신앙생활 교육 프로그램들(예를 들어 coffee break 여성모임, 독서 토론 모임, 자원 봉사 모임 등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고로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의 경우 딱히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만한 형식이나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들에서 성인들을 위한 교육을 등한시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요성만큼은 확고히 알고 있으며 여러모로 시도하고 도전해왔다는 편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사실 한인 교회 안에서 만족할 만큼의 교육 효과를 주는 활성화된 교육 형태 또는 방식이나 프로그램들이 현재 부재하는 이유는 다분히 우리 한인들의 실생활상과 맞물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교육 방식에서 만족할 만한 다양성 지니지 못해 바쁜 이민생활로 성인 교회교육은 "예배"에 큰 비중

그것은 또한 분명히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결코 예배의 권위와 가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인 교회의 교육에 있어서 예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제외한 여타의 다른 교육의 양상과 형태가 그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곧 한인 교회 교육이 그 방식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비교적 다양한 방식과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 교육들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우리 한인 교회들 대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형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인 1세대 성인들을 위한 교육은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예배를 논외로 한다면) 간간이 있는 소그룹 모임을 제외하면 딱히 성경 교육, 신앙 교육이 행해지는 장이나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들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리더십 훈련, 요일 별로 이루어지는 연영모임, 혹은 주중 성경 공부반 등이 우리 한인 교회에서는 몇몇 교회

우선 대부분의 한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심지어 주일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라, 주일을 제외하고는 교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며, 하물며 주일에도 어지간한 열성이 아니어서 예배 이외의 시간을 교육 프로그램 등에 할애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그 효과를 얻기엔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것입니다(오히려 건강상의 이유에서 볼 때 휴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많지요). 이에 한인 교회들이 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이요 프로그램은,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한인 교회의 교육은 예배중심으로, 즉 예배를 통한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에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한 교육적 노력들과 그 의미,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예배 중심적 교육 등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온전한 치료 (대상21:1-18) 찬528장

다윗이 당한 국가적 징계는 현실적이었습니다. 하루에 7만명이 염병으로 죽어가는 이 문제를 치료하는 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했습니다(9-11).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 진정한 치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렘47:1-11). 말씀의 치료가 아닌 것은 일시적이거나 말씀의 치료는 온전하며 영원합니다(마4:4). 둘째, 제단을 쌓을 때 치료됩니다(22-27). 오른 타작마당을 제단으로 삼아 온전한 화

목제와 번제를 드릴 때 징계를 멈추셨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린 다윗의 제사를 흠잡지 않으셨습니다(요4:23). 왕의 특권을 가졌어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산 땅에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윗의 경외심이 회복됐습니다(20). 염병이 중단된 것도 치료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된 것이 더 중요한 치료입니다. 순간적으로 물려온 자기자랑과 교만한 마음이 주님의 뜻만큼 높이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화 다윗언약의 실상 (대상22:1-18) 찬177장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리는 성전은 건물이나 사실은 본문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1). 건물성전을 짓기 전 기브온 산당에 성전예향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은 곳입니다. 외형적 건물보다 더 근원적인 것,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고전3:16). 둘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온순한 사람을 통해 성전을 짓고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심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을 예시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마12:6). 셋째, 성전은 언약 위에 세워집니다(9). 하나님은 부자관계를 다시 언급하심으로 영생을 나누는 관계로 나타남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본래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을 지칭한 것으로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서도 보장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수 다윗의 두려움 (대상21:19-30) 찬338장

통일 왕이 된 다윗이 만난 두번째 시련은 인구조사 통해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려는 동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가 회개하고 배운 것은 영적 두려움이었습니다(30).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경건을 배웠습니까? 첫째, 교만한 동기, 승상장구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다윗은 우사의 일로 두려움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염병의 징계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영적 두려움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기초이며 경건의 바탕입니다(잠1:7). 둘째, 아무리 은혜

를 받은 자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이 구분이 선명치 못할 때 경건이 상실됩니다. 하루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급사한 사건은 민족적 고통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은 경건을 새롭게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교회의 경건이 흔들리는 우리시대에 다윗의 경건에 이르기위해 사모하며 이것을 얻기위해 뜨거운 기도와 그의 말씀에 열심히 나아갑시다.

목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 (신32:1-6) 찬183장

이스라엘 2세대 앞에서 들려준 모세의 노래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1).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이슬같이 자기 백성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의 은혜는 이보다 더 풍성하게 나타났고 성령이 이 은혜를 개별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둘째,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4). 은혜의 하나님은 반석같이 견고한 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완성된 일에 나타난 정직과 진실의 모

습은 의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 의가 구원의 기초이며 열매이며 이 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신자는 실질적인 의의 자리에 서기 위해 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의의 인격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의의 나무를 심어야합니다(사61:3). 의가 희석되어가는 우리시대의 의를 세우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금 유일하신 하나님 (신6:1-9) 찬362장

언약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시지만 유일하신 분이심을 보인 본문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1,4).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와 자존자이시며 신실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출3:13-15). 그 분이 바로 언약백성의 아버지이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로 모신 백성만이 그의 생명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의 교제가 가능합니다(요일

5:11-12). 그를 통해만 아버지의 풍성한 생명이 전해 집니다(요일10:10). 둘째, 절대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5). 중압감에 눌린 의무에서 벗어나 영적자유를 가진 특권의식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복을 가져옵니다(6-8). 그러므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언약 백성이 힘써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토 살아계신 하나님 (렘10:1-10) 찬40장

하나님을 우상과 대비해 우대를 깨우치는 선지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가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유일 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6). 그 크신 하나님을 인간의 육신 안에 넣으려는 탐심은 정말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차라리 그 분께 자기를 모두 던져 그의 손아래 거할 때 참 평안이 깃들입니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10). 참되시고 영원하신 그분은 우리와 교제가 가능한 살아 계신 인격자이십니다. 지성, 감성, 의

지를 가지셨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생각도 아시고 미세한 감정까지도 다 느끼시고 우리에게 맞춘 공호와 사랑으로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마16:16-18). 그에게 주어진 약속 곧, 음부가 이길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현실에 실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사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호주 현지강의 안내

Aug 20-Aug 24 (8월 20 - 8월24일)

DI 808 Discerning God's Will(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Stephen Park

Aug 27-Aug 31 (8월 27 - 8월31일)

PM 853 Dynamics of Spiritual Growth(영적 성장의 원동력)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ohn Teevan

21세기 여성 지도력 개발 세미나

강사: Dr. Rachel Park(김정은 박사)
일시: 8월 28일-29일
장소: 시드니 안우리 선교센터

본교 소개 및 특전

1.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립 공간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5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U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온라인 강의(8주간)

-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 MA Courses (석사과정)
-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674-372-6100 (Ext.: 6336), 674-377-2619(한국어)
E-mail: parksc@grace.edu, gskomencstudies@gmail.com

나침반교회 입당 감사예배 (담임 민경엽 목사) 영혼구원, 커뮤니티 섬기기에 최선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브레아 지역의 영혼구원을 위해 앞장설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 새 성전을 구입하고 입당감사예배를 드리는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온 성도들의 모습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침반교회 이전계획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6월부터 당회에서 논의가 시작돼 8월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배당 구입을 위한 ‘십만번 기도운동’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건축 작정헌금을 위한 특별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렇듯 간절한 기도가 응답돼 2011년 6월 주류사회 교회였던 브레아 칼리브레 예배당에 스크린을 완공했다.

기도의 응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존 사용했던 교회가 브레아 시로 좋은 가격에 매각 됐다. 이러한 진행사항을 지켜보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새로 이전한 나침반교회는 3.5에이커 부



민경엽 목사

디옥교회와 같이 총만하여 흠어져 21세기를 섬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나침반교회는 "기쁨으로 모이는 교회,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 돼 영혼구원을 위해 흠어져가는 교회"이다.

이러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1)성경을 적용하는 삶을 중시 2)섬기는 삶을 중시 3)최고하신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돌리기 원함 4)성도들의 은사가 활용되는 것을 중

KAPC부총회장)가 말씀을 전했다.

담임 목사는 성전을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리는 나침반교회 온 성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온 교우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성전 곳곳에 배어 있을 것이다. 다행은 불같은 성전 건축의 열망이 있었지만 이루지 못했다. 오늘 나침반교회 입당은 축복의 증거이다. 이 성전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 받고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업영민 목사는 ‘주의 전에 거하는 복’(시 65:1)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성전에 거하는 자들의 가장 큰 축복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고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 성령의 기쁨 부으심을 함께 누리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본 교회 건축위원장 나종원 장로는 2010년부터 시작된 새 예배당 구입경과보고를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 예배당이 브레아 지역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제단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당

‘십만번 기도운동’ 두 차례... 온 성도 힘모아 3.5ac · 3만2천sqft · 본당 630석 · 파킹 250대

지 위에 3만2천여 스퀘어피트 건물이다. 630명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련된 본당은 중간에 기둥이 없고 음향 시설이 완벽해 예배는 물론 음악회 장소로도 손색이 없었다. 거기에 소 예배당이 2곳, 교육부도 사용할 수 있는 교실들이 10개가 준비돼 있고 차량도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파킹장이 마련돼 있다. 교회 곳곳은 아름답게 단장돼있고 건물 한편에 아름답게 꾸며진 CAFE는 성도들의 교제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교회가 소재해 있는 브레아 지역은 다이아몬드, 로렌하이츠, 치노힐스, 라브라, 부에나비사, 요바란다 등 어떤 지역이든 부담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오렌지카운티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폭발적인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본 교회 담임 민경엽 목사의 목회 비전을 들어보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연 그는 “산야에 가득한 이름 모를 들꽃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그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가 뜻 없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뜻 없는 인생은 없듯이 뜻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나침반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에 근거해 초대 예루살렘교회와 같이 기쁨으로 모여 제자를 삼고, 초대 안

시 5)계속적으로 배우는 것을 중시 6)팀워크 중시 7)창의적으로 일하기 8)성령 안에서 자유로움과 융통성을 중시 9)믿음으로 역사하는 생동감 있는 생활을 중시 10)영적 성장을 중시 11)헌신을 중시 12)신실한 지도력 등의 항목을 중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나침반교회에서 내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제자훈련.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철저한 훈련이 교회성장의 지름길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전 감사예배의 기쁨을 아낌없이 표현한 민 목사는 “교회와 성도, 지역을 섬기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새 성전 본당에서 민경엽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고석찬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 선임목사) 기도, 이민중 장로(성경봉독에 이어 업영민 목사(OC교회회장,

부했다.

이날 이광길 목사(풀러선교대학원 부원장)와 Don Schweitzer(브레아 시장) Ron Garcia(브레아 시의원)의 축사가 있던 후 김지성 목사(PCA한인서남교회 경증교회장/글로벌선교교회)의 축사로 예배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화여고 동창합창단과 대광 OB코랄의 특송이 잔치분위기를 한층 더 북돋았다.

나침반교회는 입당을 기념하며 △공공 단기선교(7월 3일-17일) △건강한 가정문화 창조를 위한 가정부흥회(7월13일-15일/강사 오영호 선교사) △지역주민을 위한 초청음악회(7월22일/테너 박인수 교수와 음악친구들) 등을 기획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nachimban.org (이성자 기자)



새로이전한 나침반교회 전경

진/강/칼/럼 (13)



이수일 전도사 (레크레이션 치료/정신건강 상담가)

한 자매의 우울과 불안증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고생하는 30대의 미혼인 홍 양은 자신에 대해 항상 만족하지 못했다. 대학원 졸업과 비교적 안정된 직장도 그녀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다. 많이 나아지는 했지만 수줍어하는 성격은 여전히 억압당하는 느낌이 항상 자기 안에 있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외부와 연락을 끊고 한 주 혹은 두 주를 심리불안으로 고생했다. 밤에 두어 시간 자다가 깨어나 잠을 청할 수가 없고 여러 생각에 골몰하게 되며 불안이 엄습해왔다. 잦은 두통도 있었다.

서른 살이 가까워지면서 불안은 더 심해졌다. 서른 살을 넘기면 결혼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엄마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다가 아예 가족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기가 실패자라는 생각이 있었다. 직장도 사회 생활에도 불안이 연속되었다. 직장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대화 정도가 대인관계의 전부였다. 남들이 자기를 이해 혹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자주 속에서 화가 나기도 했다.

신앙생활, 심리치료, 독서 등으로 다소 증상들이 나아졌으나 여전히 심리불안으로 고통스러웠다. 배 풀기를 좋아하여 교회에서 약 4년째 교사로서 섬기고 있다. 우울증(예: 번덕스러운)으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여러 차례 있었음 고백했다. 다행히 그만두지 않았음에 감사해한다고 했다. 자기와 같이 고생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을 자원하는 마음도 생겼으며 사랑과 돌봄의 신앙 공동체의 소속감의 중요성도 깨달았다고 했다.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의 소그룹 모임에서 한 주간 생활을 나누는 중, 그녀는 자기의 위와 같이 아픔을 용이 있게 나누며 자신과 참가자들의 눈망울을 적시게 했다. 그녀는 진행자의 도움을 받아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누르는 느낌이 시작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다섯 살 때 부모님을 함께 이민을 왔다. 한 살 어린 자매도 있었다. 부모님은 항상 일을 해야 했기에 자기와 동생만이 집에 있었다. 그리고 부

모님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아함을 강조했다. 이웃이 어린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것을 알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아파트의 마루가 나무로 되어 있어 항상 발꿈치도 들고 다니며 목소리도 낮추어야 했다. 특히,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울리면 어쩔 줄 몰라 한 적이 많았다고 했다.

불안한 마음은 학교에서도 지속되었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다. 부모님들이 학교를 방문할 때도 두려웠다. 선생님이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그리고 부모님이 언어장애로 잘못 이해할 것 같아서.

이러한 경계성 성격은 성인이 된 지금도 자기를 괴롭힌다고 했다.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으며 이유 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은 생각으로 말이다. 특히, 자기는 인정받을 수 없어 가치 없는 존재이고 희망이 없고 구제불능으로 도움도 받을 수 없게 여겨진다고 했다.

홍 양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처음 해본다고 한다. 하면서 함께 했던 참가자들과 함께 눈시울을 적었다. 어떤 자매는 자신들의 아픔을 대신 용이 있게 나누어줌에 감사했다. 한 형제는, 아무도 신뢰하기 힘든 자신의 마음이 홍 양의 아픔과 유사하다고 했다. 그도 수면부족과 우울 증상으로 고생을 많이 해왔는데, 고생하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픔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또 다른 자매는 서로를 이해함으로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되어 중보기도를 더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모임에서 느꼈다고 했다.

홍 양은 그 날 밤 오랜 만에 밤을 푹 잘 수 있었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우울 및 불안의 원인들을 찾은 것 같고 치료를 받는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나눔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다른 남성도 그날 밤 잠을 푹 잘 수 있었다고 했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3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3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2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2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료광고안내	도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전면 1/8	7.7cm × 11.7cm	
		15.5 × 2.8cm	\$250.00
		7.7cm × 5.8cm	
	도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